

문화예술로  
연결된  
사람들

People  
connected by  
culture and art



### 제주문화중개소?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권역별균형발전사업으로 제주 문화 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누구나 제주 어디서든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 동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문학일반, 복합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 - 강사 - 공간을 매칭해 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연결된  
사람들



# About

## 제주문화중개소

### ■ 사업목적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통해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문화 불균형을 완화
- 지역주민 - 강사 - 공간을 매칭하여 지역 내 문화서비스를 통해 제주도 전 지역의 문화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 지원 대상

- (참여자)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 (강사) 문화예술 전문 경력과 자격이 있는 강사
- (공간) 제주도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공공·민간 공간

### ■ 지원 분야

- 공연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등
- 시각예술 : 미술 / 서예 / 공예 / 조각 / 사진 / 웹툰 / 영상 등
- 전통예술 : 민속 / 향토 / 설화 / 방언 등
- 문학일반 : 시 / 소설 / 희곡 / 수필 / 독서 / 강좌 등
- 복합문화 :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접목시킨 프로그램
- ※ 문화여가 서비스 관련 취미활동 포함. 단, 생활체육 분야 제외

### ■ 프로그램 기획 방향

-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타 공공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함
- 제주도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교육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수요자인 주민의 접근성과 유동성 효과를 모두 고려함
- 프로그램의 선정은 전문가 심사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운영함
- 주민수요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함

### ■ 문화예술 및 여가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

- 발굴된 프로그램은 주민만족도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함
- 강사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인재 개발서비스를 시행하고 신뢰도가 높은 인재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Contents

<b>프롤로그</b>	02	10. 희곡 낭독 연극 살롱 - 한은주	65
<b>About 제주문화중개소</b>	04	11.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 김선동	69
<b>2023 제주문화중개소 Story</b>	08	12. 궁중채색화 : 비단에 그리는 화훼화 - 윤정환	73
<b>상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b>	10	13. 내 것이 되는 매력적인 제주도 풍경 사진 - 이경	77
- 상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도		14. 놀이를 되살려 알려주는 어른들 - 조미영	80
- 상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15. 날마다 꽃 한 송이 피우다, 페이퍼플라워 - 조인지	83
<b>하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b>	16	16. 내 곁에, 수채 펜 드로잉 - 최은선	86
- 하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도		17. 먹그림과 돌 새김 - 황정숙	89
- 하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18. 디스코 뽀뽀 - 한정수	93
<b>프로그램 강사 인터뷰</b>	21	19. 성인을 위한 소설토론 : 최신 소설반, 고전소설반 - 오승주	97
1. 가자! 야나두 FUN 캐리커처! - 우연이	22	20. 신나는 샌드아트 배워보기 - 고혁진	101
2. 엄마와 함께 손바닥 책 만들기 - 김품창	28	21. 옛지 있는 워킹으로, 부라보 마이 라이프! - 김복미	104
3. 지니쌤의 이야기 미술 - 박진영	32	22. 오페라가 있는 우아한 밤 - 장선화	108
4. 도전 MY STORY 인스타툰 작가 - 박향아	38		
5. 애들아! 나랑 같이 놀래? - 이영희	44	<b>참여자 소감</b>	112
6. 시니어 우쿨렐레 합창단 - 장창연	48	<b>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추진현황</b>	115
7. 영어 그림책 놀이터 - 김보령	52	<b>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History</b>	122
8. 구석구석 우리 동네 이야기 - 김소희	56		
9. 러브, 펫 + 사람 캐리커처 - 백금아	61		

# 제주문화중개소

## Story and Program

# 01

# 2023

## 제주문화중개소 Story

02. 03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02. 10 ~ 02. 28  
상반기 프로그램 공모

1월 ~ 2월

2월

03. 03  
상반기 프로그램 심사

03. 14 ~ 03. 27  
상반기 프로그램 마을 수요조사

3월

3월

03. 14 ~ 상시  
공간 모집

03. 28 ~ 04. 06  
상반기 프로그램 공간 매칭

3월 ~

3월 ~ 4월

04. 14 ~ 05. 07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04. 24 ~ 04. 28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오리엔테이션

4월 ~ 5월

4월

05. 10 ~ 08. 12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5월 ~ 8월

06. 09 ~ 06. 30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

07. 04 ~ 07. 06  
하반기 프로그램 심사

6월

7월

07. 12 ~ 07. 26  
하반기 프로그램 마을 수요조사

07. 17 ~ 07. 26  
하반기 프로그램 공간 매칭

7월

7월

08. 07 ~ 08. 27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08.10 ~ 08. 16  
상반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8월

8월

08. 24 ~ 08. 25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오리엔테이션

09. 04 ~ 12. 04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8월

9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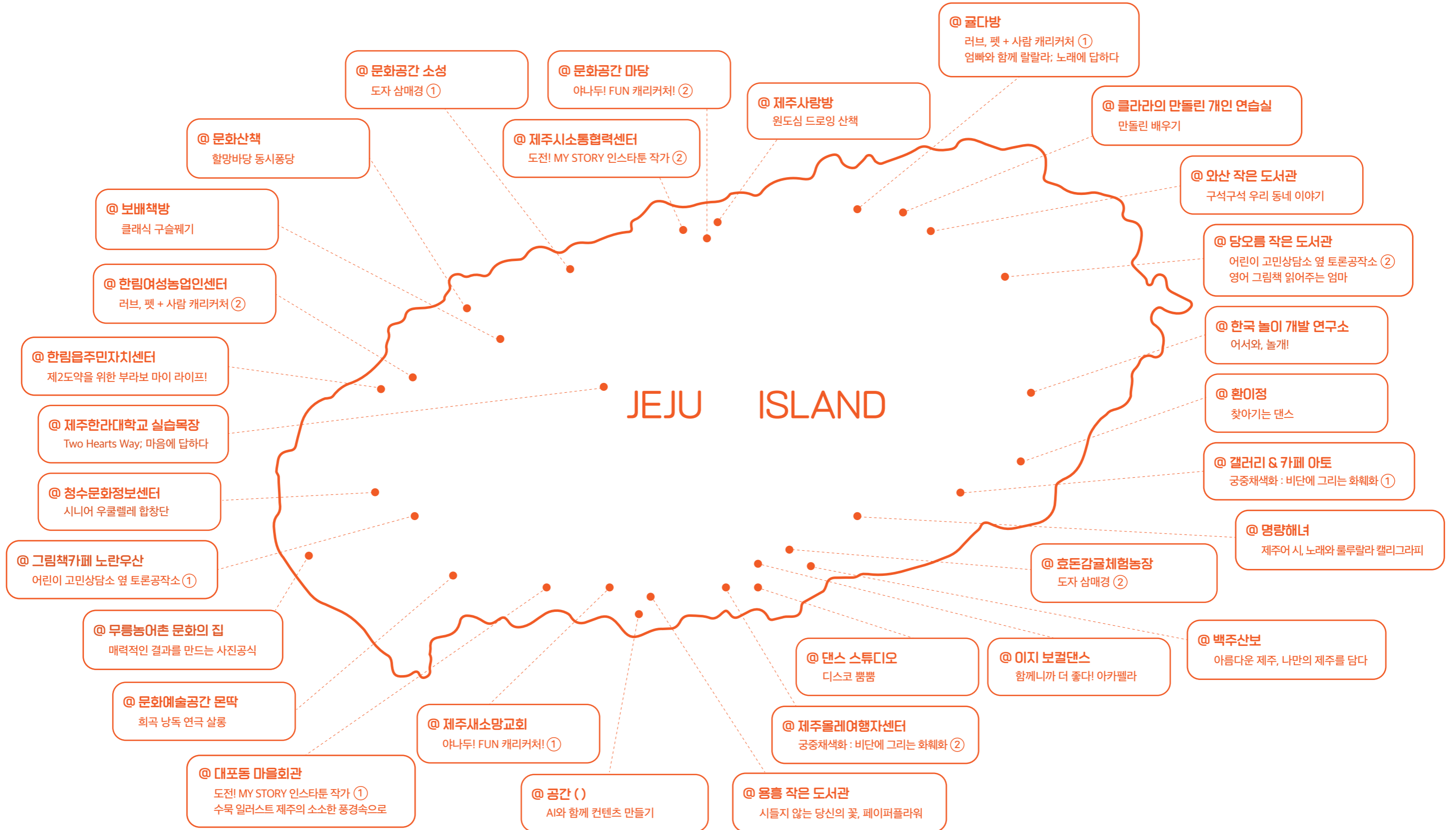
12. 04  
문화예술로 만난 우리,  
네트워킹 데이 워크숍

12. 06 ~ 12. 10  
하반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2월

12월

# 2023 상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도



# 상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 1. 시와 함께 콘텐츠 만들기

시와 함께라면 창작의 고통마저 감미롭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작하고, 창작이나 마케팅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단순한 시 기술 활용이 아닌 콘텐츠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미학,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역사 등 콘텐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도 압축적으로 알아본다.

## 2. Two Hearts Way : 마음에 답하다

<Two Hearts Way : 마음에 답하다>는 시민 참여형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곳자왈과 말, 그리고 영감과 창작을 통해 마음에 답을 해보는 시간이다. 자연과 말을 매개로 음악, 미술, 시, 움직임 등 어떠한 형식과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각자의 마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시민 참여형 전시 형태의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수년간의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기획되었고, 제주문화증개소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

## 3. 구석구석 우리 동네 이야기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우리 동네 구석구석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연극 놀이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모아 상황극을 경험해 보자. 연극 대본으로 읽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연극 놀이를 즐길 수 있다.

## 4. 궁중 채색화 수업 : 비단에 그리는 화훼화

전통 채색화를 배우고 제주를 상징하는 꽃을 그려보자.

전통 염료를 활용하고, 친근한 채색화를 경험하며 비단에 그린 나만의 꽃을 전시해 본다. 내가 그린 꽃이지만 향기가 날 것만 같다.

## 5. 도자 삼매경

우리의 인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흙이라는 소재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감정 풍요 기반의 심신 안정을 누려보자.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핑거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 6. 도전! MY STORY 인스타툰 작가

나를 표현하는 영상, 작품을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나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 SNS를 통해 공유하고 소통해 보자. 잘 그린 그림보다,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그러나 보다 재미있게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밟아나가다 보면 어느새 인스타툰 작가가 되어 있다.

## 7. 디스코 뽐뽐

7080 유행했던 디스코 음악들을 들으며, 롤리팝처럼 알록달록 개성 뽐뽐 디스코 댄스 수업을 즐겨보자.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릴 수 있으며,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힐링할 수 있는 수업. 신나고 재미있는 음악들과 스트레스 날려버릴 디스코 동작들을 배우며, 7080 복고패션과 코디하여 개성을 뽐어내는 디스코를 출 수 있다.

## 8. 러브, 펫 + 사람 캐리커처

내 삶의 동반자인 우리 집 찌꼬의 얼굴을 그려볼까? 반려동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한층 더 깊은 유대 관계를 기대해 본다. 캐리커처의 만화적 표현법을 쉽게 익히고 멋진 작품을 탄생시켜보자. 무지개다리를 건넌 사랑했던 펫도 귀엽고 생기발랄하게 그려볼 수 있다.

## 9. 만들린 배우기

만들린은 바이올린과 같이 솔, 레, 라, 미의 개방현을 가진 류트류의 현악기이다. 피크로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로서 그 소리가 매우 청아하고 아름답다. 파트를 나누어서 합주를 하면 더욱 소리가 어우러져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열심히 배우면 친구들 앞에서 공연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

## 10. 매력적인 결과를 만드는 사진공식

사진을 잘 찍는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본 프로그램은 멋진 사진 촬영 결과물을 얻기 위한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사진공식을 습득하여 SNS 등 실생활에서 사용해보자! 사진촬영에 대한 어려움을 지우러 모두 함께 떠나보는 시간이다.

## 11. 희곡 낭독 연극 살롱

배우 한은주가 안내하는 희곡 낭독과 연극과의 만남.무대 공연 예술의 기초인 연극의 대본을 함께 읽어보자. 국내

외 유명한 희곡 작품들을 소리내어 읽는 낭독을 통해서, 인간과 인생의 드라마를 이해하며 연극 세계로 초대받는 시간이다.

## 12. 수묵 일러스트 제주의 소소한 풍경속으로

제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소한 것을 모필을 이용해 화선지와 스케치북에 표현해본다. 작은 모필을 연필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자기 내면의 감성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제주의 천혜의 자연을 느끼고 그리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 13. 시니어 우쿨렐레 합창단

우쿨렐레의 형태와 운지법을 배우고 연주법을 익혀보자. 다양한 비트와 연주법, 스윙과 셔플을 전문 강사에게 배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무대 위의 연주자!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는 따뜻한 시간을 경험한다.

## 14. 시들지 않는 당신의 꽃, 페이퍼플라워

하쿠나마타타, 다 잘될 거예요!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밝고 긍정적인 '식물, 꽃'을 주제로 하여 힐링의 시간을 보내자. 온전히 나의 속도로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보면 다양한 작품이 탄생된다.

## Program Introduction

### 15. 아름다운 제주, 나만의 제주를 담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주를 만났다. 다양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사과의 전환을 통해 스토리를 만드는 힘을 습득한다. 방송 콘텐츠를 예시로 함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고 내가 만든 이야기를 편집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의 뿌듯함을 느껴보자.

### 16. 여나두! FUN 캐리커처!

캐리커처는 그림을 오래 그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통 라이브 캐리커처' 20년 노하우의 강사에게 배우는 왕초보 캐리커처 소통 수업. 국제 캐리커처 협회 한국지부장이며 최초 한국 작가인 우연이 작가의 직장을 경험해 보자. 취미부터 전문작가의 꿈까지 키울 수 있는 입문 강의이다.

### 17. 어린이 고민상담소 옆 토론공작소

어른들은 몰라요~ 어린이들의 세상에서 겪게 될 알쏭달쏭 고민들을 쟁점으로 만들어 토론 게임을 해볼까? 토론 주제와 연관된 텍스트 (그림책)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모둠을 나눠서 팀플레이 방식으로 토론 능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18. 어서와, 놀게!

스마트 세계에만 빠져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놀이의 즐거움을 부모와 같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다양한 전통놀이를 익히고, 익힌 활동을 자녀

의 공동체 활동에 적용하여 스마트 세상에 빠진 아이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건강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부모가 익히는 전통놀이 교실을 시작한다.

### 19. 엄마와 함께 랄랄라 노래에 답하다

음악의 언어를 이해하고 엄마와 함께 싱어송라이터에 도전하다! 음악이 주는 정서적 경험을 통하여 부모님과 아이의 유대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얻는 동요 만들기. 엄마 혹은 아빠와 아이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노래에 답을 해보는 음악 여행을 떠나본다.

### 20.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엄마 (부모님)들을 위한 가이드가 될 수업!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대화 매개체를 소개한다. 독후 활동을 미술과 접목시켜 만들기를 해보는 시간, 책 읽기를 통한 경험을 나누고 하브루타식 책 읽기를 배워본다.

### 21. 원도심 드로잉 산책

원도심을 알아가며 주제별로 산책하고 지역의 자연을 이야기로 담는다. 일상을 여행하듯이 걷고 느끼고 그려보며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전 세대가 참여 가능한 생태 드로잉을 기반으로 원도심의 현재를 기록하고 생태적으로 더불어 사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 22. 제2도약을 위한 부러보 마이 라이프!

기존에 갖고 있는 '모델'의 틀을 깨고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는 시간. 예술은 어렵지 않으니! 중년들의 잘못된 자세와 걸음걸이를 모델 워킹 수업을 통해 교정하고 바른 자세, 바른 걸음을 생활화할 수 있다. 모델 워킹을 익혀서 패션쇼라는 색다른 공연을 해본다.

### 23. 제주어 시, 노래와 톨루랄라 캘리그래피

'글자라고 모두 딱딱하진 않아요~' 자유로운 우리의 제주어로 노래와 시를 부르고 쓰며 감수성과 힐링, 마음의 치유를 느껴보자. 그림과 같은 감성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는 제주어 감성 프로그램이다.

### 24. 찾아가는 댄스

자유롭지 못했던 코로나로 약해진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춤 교실. 누구나 참여하기 쉽도록 편하고 즐거운 힐링 춤 수업을 시작한다. 이동 활동과 참여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댄스교실이다.

### 25. 클래식 구슬 꿰기

클래식 음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치 구슬과 같다. 귀하고 좋은 줄은 알지만 보통 그것을 꿰는 방법을 몰라 버겁고 어렵다고 느끼기 십상이다. 클래식 구슬 꿰기는 "음악은 좋아하지만 문외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음악이 발생한 사회문화적인 역사적 배경 안에서 만나보며 귀한 구슬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 26. 할망바당 동시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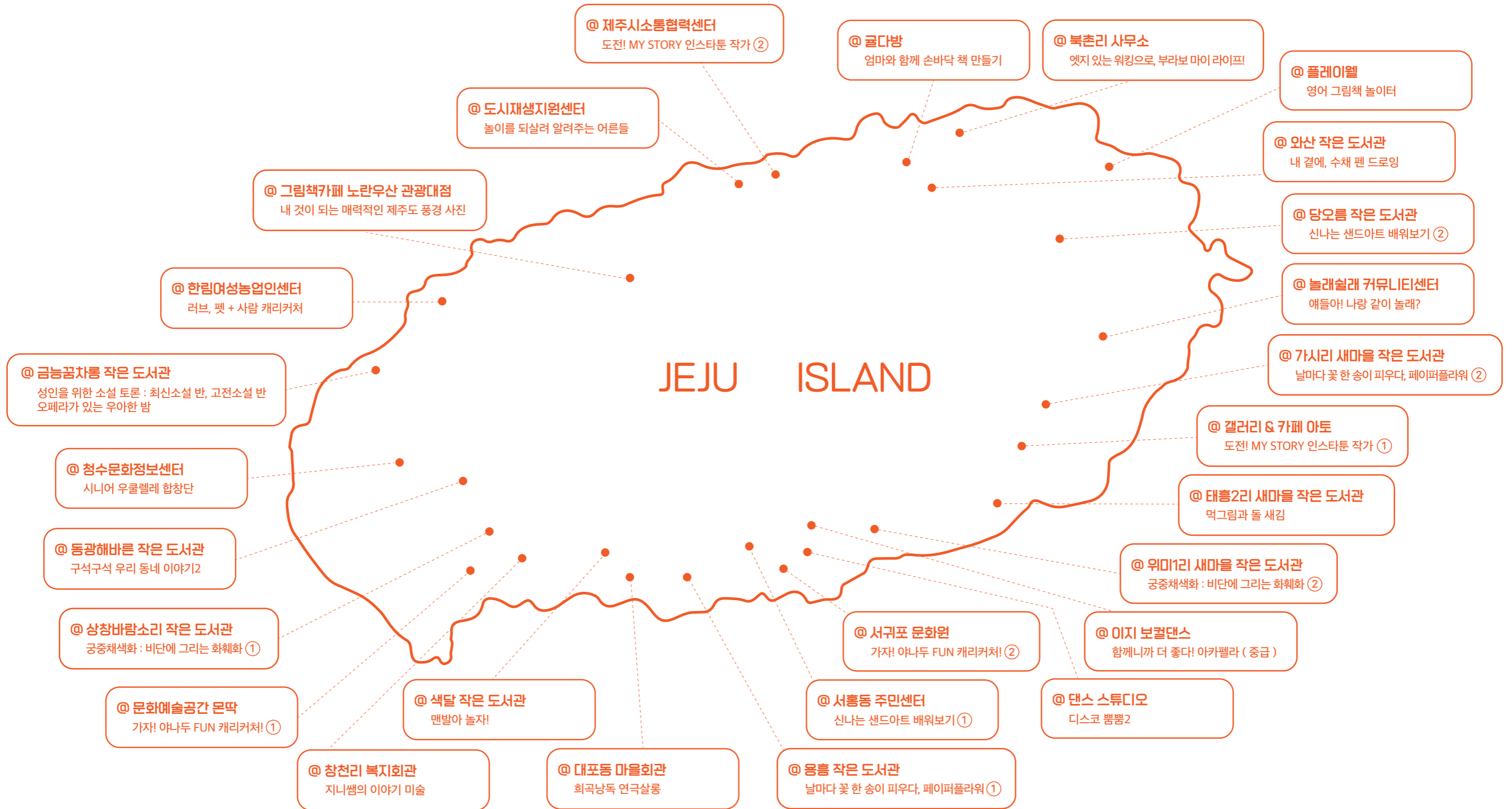
제주도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다양한 매체 그리고 구술 자료집을 바탕으로 제주 이야기, 나와 이웃 등 나와 연결된 특별한 동시를 창작하자! 언어는 생각의 집. 어린 시절 성장한 자연은 마음의 집. 마음과 생각이 다정하고 단단한 어린이 창작교실이 열린다.

### 27.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악기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음악을 만들어보자. 노래와 음악과 사람이 가진 자연 그대로의 소중함.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합을 느낄 수 있다.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카펠라 강의 경력 19년 차 강사에게서 배우는 국내 최고의 아카펠라 강의를 만나본다.



# 2023 하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도



# 하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 1. 가자! 야나두 FUN 캐리커처!

캐리커처는 그림을 오래 그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전통 라이브 캐리커처' 20년 노하우의 강사에게 배우는 왕초보 캐리커처 소통 수업. 국제 캐리커처 협회 한국지부장이며 최초 한국 작가인 우연이 작가의 직강을 경험해 보자. 취미부터 전문작가의 꿈까지 키울 수 있는 입문 강의이다.

## 2. 구석구석 우리 동네 이야기2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우리 동네 구석구석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연극 놀이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모아 상황극을 경험해 보자. 연극 대본으로 읽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연극 놀이를 즐길 수 있다.

## 3. 공중채색화: 비단에 그리는 화훼화

전통 채색화를 배우고 제주를 상징하는 꽃을 그려보자. 전통 염료를 활용하고, 친근한 채색화를 경험하며 비단에 그린 나만의 꽃을 전시해 본다. 내가 그린 꽃이지만 향기가 날 것만 같다.

## 4. 내 곁에, 수채 펜 드로잉

평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물과 내 곁을 지나치던 일상의 장소들, 내 안의 소중한 추억과 품어온 장소들을 펜 드로잉과 어반 스케치를 통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 5. 날마다 꽃 한 송이 피우다, 페이퍼플라워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즐기고 자신만의 시간에 집중해 보자. 예쁘지만 금방 시드는 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나의 주변을 화사하게 밝혀줄 꽃을 완성해 보길! 손재주가 없어도 과정을 즐기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쁜 꽃을 피워 낼 수 있다.

## 6. 내 것이 되는 매력적인 제주도 풍경 사진

아무리 멋진 풍경 사진도 내 사진이 될 수 없다면 감상자 로만 머물게 된다. 제주도의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인 풍경을 내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멋진 오름과 바다, 숲과 나무 등 촬영 실습 우선 프로그램. 제주도의 멋진 자연을 내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본다.

## 7. 도전! MY STORY 인스타툰 작가

나의 이야기가 있는 누구나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수업. 스스로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하자.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그러나 보다 재미있게 표현하는 과정을 함께 밟다 보면 어느새 나도 인스타툰 작가가 되어 있다.

## 8. 디스코 뽐뽐2

7080 유행했던 디스코 음악들을 들으며, 롤리팝처럼 알록달록 개성 뽐뽐 디스코 댄스 수업을 즐겨보자.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릴 수 있으며,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힐링할 수 있는 수업. 신나고 재미있는 음악들과 스트레스 날려버릴 디스코 동작들을 배우며, 7080 복고패션과 코디하여 개성을 뽐어내는 디스코 뽐뽐 댄스를 출 수 있다.

## 9. 러브, 펫 + 사람 캐리커처

내 삶의 동반자인 우리 집 찌꼬의 얼굴을 그려볼까? 반려동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한층 더 깊은 유대 관계를 기대해 본다. 캐리커처의 만화적 표현법을 쉽게 익히고 멋진 작품을 탄생시켜보자. 무지개다리를 건넌 사랑했던 펫도 귀엽고 생기발랄하게 그려볼 수 있다.

## 10. 맨발아 놀자!

맨발아 반가워, 함께 춤을 추자!! 놀이 형식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돕고, 어른들의 지친 발을 쉬게 하자.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 우리의 발에게 집중하여 나를 표현하고 함께 즐겨보는 신나는 시간을 갖는다.

## 11. 성인을 위한 소설 토론: 최신소설 반, 고전소설 반

읽고 싶은 소설은 많은데 혼자 읽기는 엄두가 안 난다면 '소설 토론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보자. 강사가 맥락을 잡아 주고 '함께 읽기'에 참여하는 동료들이 말을 보태면 한 차원 높은 독서의 경험과 재미가 두 배가 된다. 올해는 고전소설과 최신소설이라는 두 가지 맛을 제대로 음미해 보자.

## 12. 시니어 우쿨렐레 합창단

우쿨렐레의 형태와 운지법을 배우고 연주법을 익혀보자. 다양한 비트와 연주법, 스윙과 서플을 전문 강사에게 배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무대 위의 연주자! 작은 음악회로 따뜻한 시간을 경험한다.

## Program Introduction

## 13. 먹그림과 돌새김

전통회화인 한국화와 캘리그래피, 전각 새김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볼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술 프로그램이다.

## 14. 신나는 샌드아트 배워보기

빛과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밝은 빛과 모래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개성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작품이 나오는 샌드아트 기초과정을 통해 손으로 느끼는 모래의 감각에 눈을 떠 보자.

## 15. 애들아! 나랑 같이 놀래?

친구를 만나도 어떤 놀이를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아이. 상황에 따라 노는 방법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경우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스마트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 16. 엄마와 함께 손바닥 책 만들기

우리 아이와 손바닥 책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접어 만드는 손바닥만 한 책)을 만들어보자. 이야기하고 싶은 글을 스토리의 전개 방식에 따라 쓰고 그려내어 제본까지 직접 해보는 미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 Program Introduction

### 17. 옛지 있는 워킹으로, 부라보 마이 라이프!

기존에 갖고 있는 '모델'의 틀을 깨고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는 시간으로, 중년들의 잘못된 자세와 걸음걸이를 모델 워킹 수업을 통해 교정하고 바른 자세, 바른 걸음을 생활화할 수 있다. 모델 워킹을 익혀서 패션쇼라는 색다른 공연을 경험해 본다.

### 18. 영어 그림책 놀이터

영어 그림책 속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언어의 즐거움을 알려주자.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려움보단 즐거움이 남을 거야! 독후 활동과 영어놀이, 영어 노래를 섞어서 놀이의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해 본다.

### 19. 오페라가 있는 우아한 밤

오페라. 생각만으로도 스스로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드는 공연예술의 꽃을 드디어 공부해 볼 기회가 왔다. 오페라의 발생으로부터 시대사별 변화를 살펴보고 시대별 주요 오페라를 감상해 보면서 즐겁게 오페라를 배우는 우아한 시간이다.

### 20. 놀이를 되살려 알려주는 어른들

잊혀가는 골목놀이, 전래놀이를 다시 깨워본다. 비석치기, 고무줄, 다양한 술래잡기 등 울레에서 놀던 그 놀이를 되살려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놀이를 통해 세대 간 틈을 조금 더 메꿔보자. 몸으로 기억하는 놀이 방법과 규칙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다.

### 21. 지니쌤의 이야기 미술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수업이 아닌 아동의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미술 수업! 마음속 아동의 생각, 정서,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아동의 그림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이다.

### 22.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중급)

아카펠라 초급과정에서 충분한 흥미와 매력을 느꼈다면, 이제는 좀 더 제라지게! 완성된 무대를 꿈꾸며 마음껏 아카펠라를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함께하자!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배우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 23. 희곡낭독 연극살롱

배우 한은주가 안내하는 희곡 낭독과 연극의 만남. 무대 공연을 전제로 쓰인 희곡을 낭독하며 극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의 몸과 목소리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연극적 세계를 경험해 보자! 국내외 명작 희곡들을 낭독하며 다양한 삶과 인물들을 만나고 인간과 인생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연극의 세계로 초대받는 시간이다.

# 문화예술로 연결된 사람들 — 강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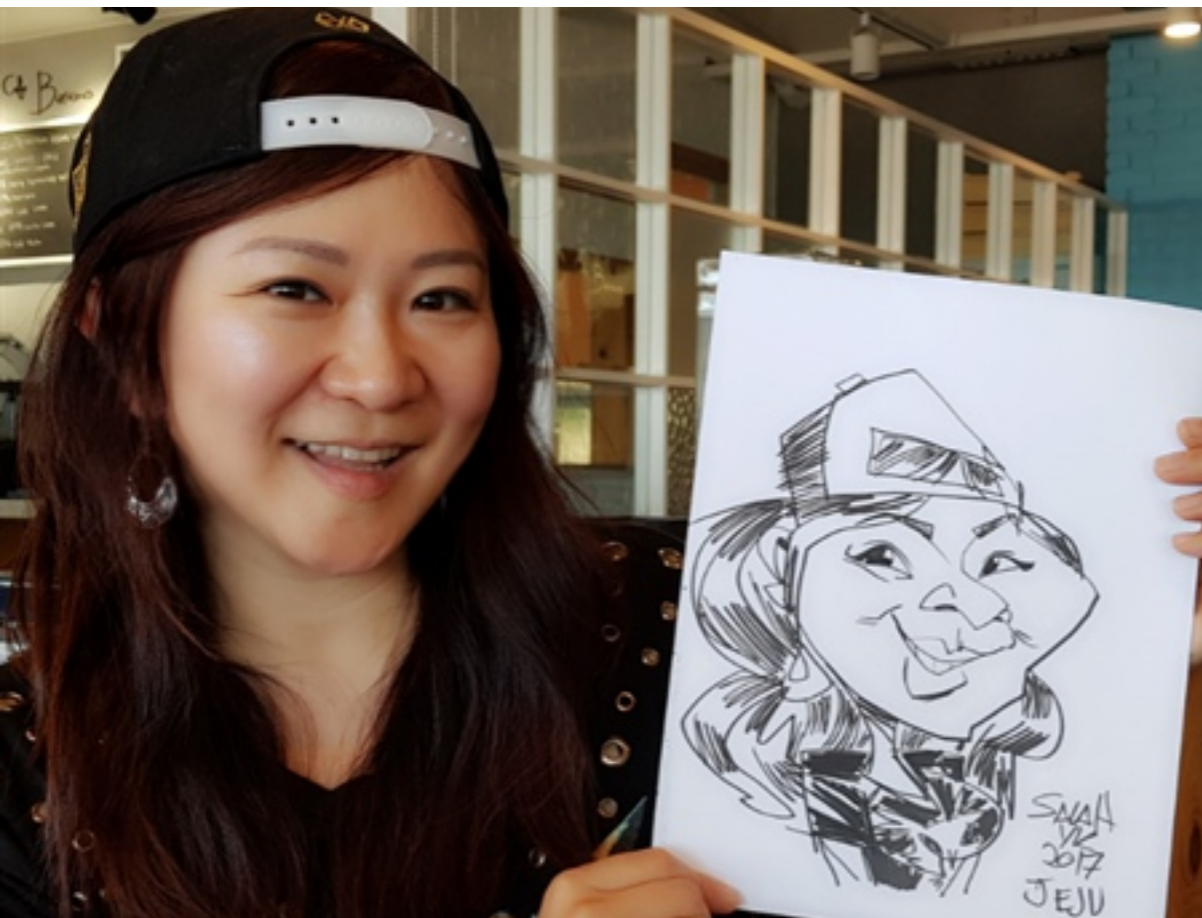
# 02

# 가자! 야나두 FUN 캐리커처!

**우연이**



**"저의 수업은 항상 사람들이 웃어요. 요즘은 소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림 하나로 그냥 서로 웃을 수 있는 게 캐리커처밖에 없어요. 웃으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게 저희 과정이고요."**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리커처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작가 우연이입니다.

## Q. 캐리커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문화중개소에서 하는 캐리커처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작품 위주가 아닌 직접 사람을 보고 그리는 라이브 캐리커처가 60%, 그다음에 기초 선연습, 드로잉 기초, 인체 얼굴의 기초, 캐리커처의 특성, 사람을 보는 방법, 그려내는 방법, 속도를 내는 방법 등 이렇게 기술적인 면이 30~40% 들어가 있어요.

## Q.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아예 배우지 않았던 분들을 더 선호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을 배웠지만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데생의 선들이 있어요. 건축을 하셨던 분들도 본인들의 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라이브로 교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남들보다 보는 눈은 정확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려내는 데는 얼마만큼 감각적으로 성실하게 배웠느냐보다는 캐리커처의 기술을 정확히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캐리커처는 처음부터 보는 방법을 배우야 되거든요. 미술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사람을 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초상화를 그리셨던 분들은 변형하고 과장하는데 좀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가 아예 없는 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조금 빠르게 느낄 수 있어요.

## Q.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캐리커처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인사동 쌈지길 이런 곳에 가면 캐리커처 작가들이 보이시죠? 저는 FUN 캐리커처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작가를 키우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 만화 협회는 아주 많지만, 캐리커처 협회는 이스카(ISCA)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그 국제 캐리커처 협회 한국 지부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최초 한국인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라이브 캐리커처 문화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키우는 활동을 해왔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인사동 등 여러 곳의 매장을 접게 되었어요.

이렇게 회사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제가 좀 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니까 그때 제주도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주도민이었고, 제주도를 너무 사랑해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걸로는 성에 안 차서 제주도에 언젠간 정착하리라 말을 했고요.

문화중개소에 제가 작년에 합류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캐리커처 강의가 없어요. 서울도 많이 있지 않고, 제주도는 특히 거의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잖아요? 미술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만화학과 쪽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만화와 캐리커처는 기법도 완전히 다르지만 보는 법도 정말 달라요. 그래서 '캐리커처를 좀 대중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문화중개소에서 강의를 시작했구요.

**Q.수업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요.**

저도 코로나 끝나고 강의를 오랜만에 하니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문화중개소 강의에 애착을 갖고 있어요. 특정 마을 주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체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 강의도 하루 정도면 거의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시험도 보고 숙제도 되게 많이 내드려요. 그리고 30분 일찍 오셔서 빨리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연습량을 많이 채워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정말 즐겁게 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Q. 강의를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내가 이거를 진짜 할 수 있겠냐", "나는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집에서 할 일 없고 힐링하려고. 미술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령 제한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솔직히 라이브 작가를 하려면 50세 이전에 오시는 게 좋지만 55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스킬을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1~2년 정도, 그냥 6개월~1년 정도면 나가서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점점 실력을 쌓아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하고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중개소에서는 기초 베이스만 닦아드리지만 그렇다고 스킬만 가르쳐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라이브 과정이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법, 그다음에 소통하는 법, 그림으로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죠. 그래서 바로 작가가 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컬러 과정은 고급과정으로 넣는데 지금 컬러 과정은 들어가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냥 해보시라고 했는데 연령대가 꽤 높으신 분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연령대를 처음 가르쳐 본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 배운 적도 없고 펜을 처음 잡아보신 분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셔서 감사했어요.

문화중개소에서 제 강좌를 한 번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세 번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시지 말라고 그러죠. 같은 것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이스를 계속 닦으시려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강좌 내용을 계속 바꿔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희는 솔직히 작품 전시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과를 중시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요즘은 소통이 없는 세상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림 하나로 그냥 서로 웃을 수 있는 게 캐리커처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뭘 그리면 이걸 잘 그렸나, 못 그렸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캐리커처는 속도가 좀 빠르고, 라이브를 그리면 사람들이 다 히죽히죽 웃어요. 풍경화나 정물을 그리면 "와! 잘 그렸다" 이러지 웃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업은 항상 사람들이 웃어요. 어떤 그림을 꼭 내가 전문적으로 잘 그리지 않아도, 여행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어디 가서 그냥 밥 먹다가 옆에 사람을 그려주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게 저희 과정이고요.



**Q. 프로그램 진행 하면서 수업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일대일로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들을 정확하게 말해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것을 수정해 오시거든요. 서울에서는 100명 정도의 대규모 수업들이 많았어요. 이러면 일대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10명 정도의 소그룹이라 충분히 개별지도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 연필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줘요. 선쓰는 법부터요. 누구나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얻어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사람을 보는 방법만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도 오늘 처음 눈, 코, 입 그리는 방법을 10분 가르치니까 바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캐리커처는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닮게 그리냐가 아니라 보는 방법 자체를 과장해서 봐야 해서 이 내용을 모르면 모든 그림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처음에 그림을 받았을 때 "어? 나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다양하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지만 어려운 것이 캐리커처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캐리커처를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은 눈빛으로도 되고 웃음으로도 되고요. 소통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 대한 관찰과 애정이 없으면 캐리커처는 잘 안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얼굴, 좀 특이한 얼굴들을 보면 극히 애정이 나와요. 너무 너무 그 얼굴을 그리고 싶고, 그 얼굴의 장점 단점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독특한 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캐리커처를 하다 보면 각자 얼굴을 되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강사로서 혹시 참여해 보시고 어떠신지 여쭙봐도 될까요?**

우선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주문화중개소에서는 강사의 등급대로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경력 있는 강사들은 강사료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력 있는 강사님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아닐까 해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으세요. 마을 수업의 경우 물론 열심히 수업을 잘 들어주시지만, 수강생분들이 수업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제주중개소는 처음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끝까지 결석없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사들도 더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 조금 짧다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저는 맨날 10~30분 초과 수업을 해서 문밖 대표님께 죄송하긴 한데, 안 할 수 없어요. 원래 미술 수업이 음악도 틀어놓고 여유 있게 생각도 하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시간을 딱 지키려 하면 말이 너무 빨라져요. 제가 가르치려는 욕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칠 것은 한정되어 있고, 수업은 1시간 40분(연강)에서 2시간이니까 너무 촉박하죠. 그게 조금 저는 유일한 단점이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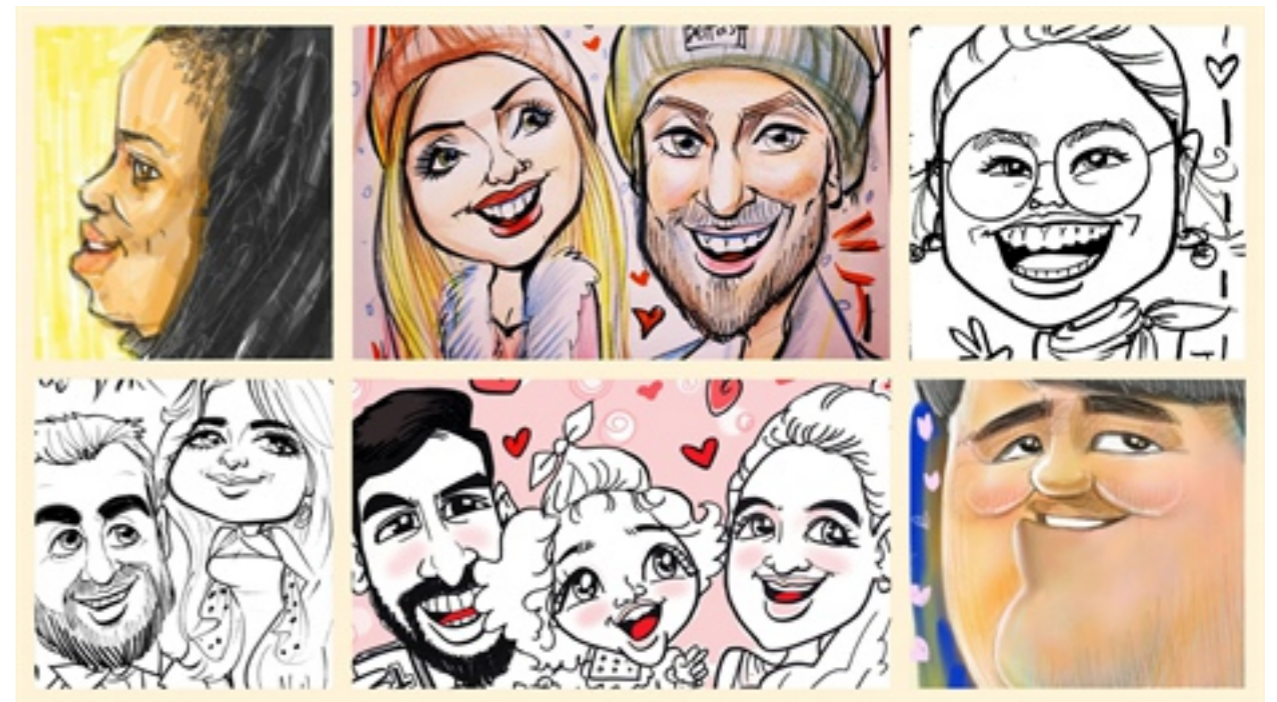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강사님과 학생들이 오세요. 그 퀄리티라는 말은 열정이죠. 기존에 배워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게 문화중개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신가요?**

첫 번째,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조금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사 퀄리티도 계속 검증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강사도 점점 발전되지 않을까요? 저도 피드백을 받아야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지, 좋고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수강생들에게 피드백을 그냥 일반적으로 '좋았나요?', '별점 다섯 개 중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았습니까?',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정말 잘 쓴 사람들한테는 다음에 어떤 이점을 주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강의 의무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조금은 구체적인 피드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강사를 평가한다는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익명의 피드백을 강사가 보아야지 보완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잘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캐리커처 필드가 제주도에 좀 정착되고 동아리나 봉사활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축제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세컨드 잡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쉬러 온 이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팀들이 제주도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잘해야죠.



# 엄마와 함께 손바닥 책 만들기

**김품창**



**"'해의반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복장으로나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온대요. 저의 핵심은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잘 노는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제주도에 내려온 지 23년째 되는 김품창입니다.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제주의 판타지를 그리려고 내려왔어요.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강의도 하게 됐네요.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그림책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손바닥 책 만들기를 고안했어요.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스토리, 시놉시스를 짜고 이것을 완전히 압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출판에 대한 개념과 소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장면 변화는 어떻게 시키는지 등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순수미술은 제도적이어서 화가가 되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림책의 장점은 전공이 필요 없어요. 미술대학을 안 나오고 그림을 못 그려도 관계없어요. 오로지 아이디어만 좋아도 할 수 있더라고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스킬이 있어야 했는데 요즘은 진짜 초등학생처럼 그려도 내용만 재밌으면 출간이 돼요. 그래서 그림책을 사람들에게 권유해요. 순수미술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도 기득권 세력이 많아서 힘들지만 그림책은 반대거든요.

## Q. 진짜 그림을 못 그려도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나요?

할머니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죠. 저는 항상 작가가 되고 싶으면 작가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갑자기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나면, 오늘 전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린 그림을 가져오면 다 피드백을 해주죠. 선생의 한 마디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초등학교 5학년 미술대회에서 입선을 할 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용돈 500원을 주셨고 상도 탔고, 그때부터 화가라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지긋이 쫓아가니까 됐잖아요.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금방 똑딱 그림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몸짱’이었어요. 몸을 크게 그려 놓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몸집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나는 몸짱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또 방송에 나올 인터뷰를 찍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수업 재밌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요.”수업은 재밌지만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Q. 아이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 부분도 있나요?**

일반 그림에서는 안 그려는데 그림책에서는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너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엄마들의 그림책은 뭔가를 멋있게 장식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없거든요. 아이들의 그림책은 의미가 별로 없지만 사람들을 빵 터지게 해요. 굉장히 교육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감동을 주는, 아이디어를 빵 터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책이죠.

**Q. 수업 노하우와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모든 강의를 그렇지만 처음에는 서로가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어요. 결국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더라고요. ‘해의반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편안한 상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장소적으로나 복장으로나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온 대요.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잘 노는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의 핵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와 저와 삼박자가 맞아가고 있다는 점. 그게 변화되는 부분이죠.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곳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다 능력자시고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무료 강의예요. 저는 그래서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약속이 있는데 포기하고 수업 왔어요”, “오늘 못 내려오는 일정이지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아 달라는 걸 알아주시라고요. 수강생이 있고 없고는 선생님의 능력이고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빠져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번 빠지고 포기하는 수강생을 보면 정말 아쉽죠.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제주문화중개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선 저는 강사니까 강의를 잘 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향후 계획이죠.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도 계속할 생각인데 프로그램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 지니쌤의 이야기 미술

**박진영**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평 하고 나타나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림 속 숨겨진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점이 제 수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영이고요. 닉네임은 지니예요. 제가 수업하는 연령대가 주로 유아동이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평 하고 나타나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니쌤의 이야기 미술’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만 미술적인 활동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수업은 아니예요. 그림 속 숨겨진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점이 제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색깔은 어떤 색깔까?”, “이 색깔에 어떤 마음을 담았어?”, “이 그림에서 정말 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야?”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그렸던 그림에서도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생각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제 수업은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고 웃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수업이 미술 수업인지 퍼포먼스 수업인지 여쭙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이 아이들 내면에 쌓여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표출해 내도록 돕는 저만의 미술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요.

## Q.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나이,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창천리 복지 회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7세부터 5학년까지 14명 정도 수업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비는 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Q. 나이의 스펙트럼이 되게 큰데 게다가 열네 명이 시끌벅적하면 진짜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저는 7세부터 3학년까지가 가장 적당한 연령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14명 중 5학년 아이는 사실이 수업과 맞지 않아요.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 이 학생은 사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 학생하고 얘기를 나눈 끝에 별도의 수채화 수업을 따로 진행해 주고 있어요. 그 친구만 중간중간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툭툭 레슨을 해주고 있는데 벌써 세 작품을 완성했어요!

### Q. 선생님의 전공은 미술인가요?

저는 미술 전공 91학번이라서 졸업한 지 좀 오래됐고, 중간에 그림책 만드는 일을 한 20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다시 대학교에 편입해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있고요. 저는 제 아이들의 마음을 계속 보고 싶는데 이론을 모르니까 그 마음의 뿌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 둘째가 소아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울증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우울증이 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 아이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아이를 이해하고 좀 잘 키우고 싶은데 엄마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자꾸 아이한테 욕박지르게 되고 화 내게 되는데 아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엄마는 엄마 마음만 알아.” 이 말을 저한테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해 줘.” 라 물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항상 “나도 몰라.”인 거예요. 이후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같이 찾아보자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이가 우울증도 극복을 하고 아주 건강하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저희 아이같이 힘든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엄마들도 아프고 애들도 다 아픈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미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 아이의 사춘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2까지 6년이었어요. 지금은 고3인데 이 아이의 사춘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시한폭탄을 들고 살 얼음판 위에 서있는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살얼음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 저보다 더 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신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지도하게 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해오게 했다면 이 두 개를 접목해서 우리 아이처럼 아파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지난주 수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나무가 왜 변하는지, 계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 나무를 '나'로 가져왔다면 나의 봄은 어떤 나무, 나의 여름은 어떤 나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수업을 진행했어요. 근데 평소에 항상 '하기 싫어요 병'에 걸린 한 아이가 40분 만에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러곤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40분 만에 이 사계절의 나무를 다 그릴 수 있는 너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너의 마음속에 이미 나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인데 선생님이랑 그림 손을 꼭 잡고 다른 친구들의 나무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나머지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관심이 많이 필요했구나. ‘그냥 네 맘대로 해!’라는 자율성 속에 이 아이를 혼자 놔두는 시간이 많았겠구나.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이 아이는 제약을 두고 그 안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미션을 던져주고 그것만큼 칭찬을 해준다면 더 좋아지겠구나’ 했던 전략이 아이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고 가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 했던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제 손잡고 돌아다니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아이들은 정말 관심이구나. 인정이구나. 아이들은 정말 끊임없이 눈빛과 사랑, 애정을 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요즘 얻고 있어요.

### Q.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하기 위해선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마다 능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멋지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하나도 간신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간신히 하는 아이에게 네 개를 다하라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서도 ‘역시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라도 나는 잘 하는구나’를 주고 싶은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선생님은 네가 최선을 다 한 걸 알아. 대신 이 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 이러면 아이는 되게 행복해하죠. 물론 다한 아이는 무지막지하게 칭찬받죠. 그럼 그 아이는 다음에 더 잘하겠죠. 능력이 다 달라요.

### Q. 첫 수업과 지금까지의 수업을 진행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 말고 아이들에게 다른 변화가 있었나요?

있어요. 저희는 서포터 선생님이 계세요. 이 분이 첫날 1회차 수업을 했을 때 ‘이거 어떡하냐? 일곱 살부터 5학년까지 각기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12회차까지 이끌어가지?’라고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서포터 선생님이 더 잘해요. 애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아이들도 서포터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이 서포터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동화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한번 안아주면 서포터 선생님도 한번 안아주고. 그런 변화? 처음에는 딱 거리를 두고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파악했다면, 지금은 오면 막 스킨십을 해요. 오면 막 달려들어서 안기고. 제가 체구가 좀 있는데 그거 들어보겠다고, 애들이 막 내기하겠다고 하고. 그런 변화들. 아이들이 이 시간, 이 공간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구나.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Q.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장소 대관해주시는 복지관 담당 선생님 자녀분도 수업을 듣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러세요. “아니 두 시간 동안 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밖에서 들으면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는데요. 아이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너무 멋있지 않니?”, “어떻게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니?” 이야기하며 깔깔깔 웃는 것. 동생들이 잘 못해도 형아들이 다 박수 쳐주는 것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해요. 이 수업을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14명이 정말 다 예뻐요. 너무 예뻐서 엄마들이 “선생님 눈에서 꿀 떨어지세요!” 그래요. 정말 애들을 하나씩 보고 있으면 다 예뻐요. 그것이 제일 큰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족하다는 게 예뻐요. 이런 거죠. 제 눈에 안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아이, 반항적인 아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헤집고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아이를 더 예뻐하려고 해요. 처음엔 의도적으로 더 예뻐해요. “너무너무 착하다.”, “너는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 호기심을 조금만 줄여 주겠냐?” 그리고 조금 줄이면 “너는 정말 너 자신을 컨트롤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아이에게 맞춰가면 나중에 그 아이가 정말 제일 이뻐져요. 왜냐하면 제 눈에 예쁜 아이는 밖에서도 예뻐요. 그러니까 제 눈에 잘하는 아이는 밖에서도 칭찬받고 잘 할 확률이 높아요. 굳이 저한테까지 칭찬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제 눈에 미운 아이는 밖에서 칭찬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니 선생님 하고 수업하는 기간이라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Q.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진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룬데 돈 써야 돼요. 제주도가 돈 제일 잘 쓰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겠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부모님의 부담없이 아이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걸 정말 제주도가 하는 최고의 아동 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잘 쓰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제가 됐길래 강사도 아무나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어마 무지한 경쟁률이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으쓱해졌어요.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믿을 만한 교사’고 ‘믿을 만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전제가 깔렸다는 거잖아요! 비용 부담 없이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저는 재료도 진짜 좋은 재료만 쓰거든요. 이거는 약간 TMI인데 저는 도화지도 180g 안 쓰고 220g 써요. 도화지 한 장도 전문가용 쓰면 애들이 색칠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는 특혜는 말도 못 하는 거죠. 제주도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Q. 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곳곳에서 제가 안 해도,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수업을 많이 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온 힘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문화중개소 수업도 보니까 성인 대상 수업이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 프로그램이 좀 보강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학부모 수업을 계획 중인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엄마의 기도’예요. 자녀, 내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1년 동안 수업을 할 예정인데 약 40주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림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요. 수업엔 열다섯 분이 참여할 예정인데 1년 동안 그림책을 만들어서, ‘제주도 엄마의 기도’라는 시리즈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거 하고 똑같이 지금 제가 센터에서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림책이 일곱 권 출간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10권이 더 나와서 17권이 될 예정이에요. 엄마들 도서 15권과 아이들 그림책 17권을 묶어 출간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제 계획이에요.



# 도전 MY STORY 인스타툰 작가

## 박항아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2% 밖에 안된다는 거! 그림은 모양을 잘 관찰하고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 잘 잡으면 굉장히 잘 그려 보여요.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다보면 보기 좋게 완성됩니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로 N잡러 웹툰 강사 박항아입니다. 다르게 소개하자면 가방끈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보통 오래 공부하셨다고 하면 학사 끝나고 석사, 그리고 박사를 따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들이 그러는 동안 학부만 세 번 다녔어요. 제가 마지막 졸업은 2019년 8월에 했거든요? 전에도 몇 번 강사를 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강사 생활을 제대로 다시 시작했어요.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중개소에서 인스타툰 수업을 지금 네 번째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디지털 기계로 드로잉 하는 법을 위주로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그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이것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초반에 그림의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스토리 짜는 법을 가르치게 됐어요. 실제로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식으로 다듬고, 마인드맵으로 그리고 공유하니까 각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서로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라던가 가족이나 반려동물이나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요. 스토리를 세우고 기획하고 또 스토리를 구상하고 이를 연출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서귀포에 살거든요? 서귀포에 애니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원에 가려고 주말마다 제주시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만화과를 두 번 졸업한 흔치 않은 사람으로서 그 친구들에게 만화를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화가 처음에는 각광받는 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화를 그리고 싶었지만 엄마의 반대로 공부를 했고, 이제 일반적인 직장 또는 공무원이라는 생활 속에서 여유가 생겨 다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만화 수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그 끝에 인스타툰이라는 수업을 만들게 되었어요. 인스타툰은 연재를 하는데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문화중개소에서 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Q. 인스타그램 특성상 다른 글에 비해서 이야기를 함축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은 10장인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너무 함축하게 되면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누구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나레이션으로 많이 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티키타카하고 대사하는 이런 장면이나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게 어려운 게 또 그러다 보면 10컷이 넘어가 버려요. 어떤 글이든 각 화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하나 선정하고 나머지는 걷어내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작품을 완성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교정 때문에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처음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졌고, 재밌어졌구나를 깨달으면 더 신나서 잘 하시더라고요.

**Q.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작품 게시도 하시나요?**

네. 이건 개인별로 다 다른데, 일단 수업에서는 서로 공유를 해요. 아직은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수업 시간에만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본인 계정에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번 수업 때의 일인데요. 제가 표선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그쪽에 거주하시는 제주도민 분들도 있지만 육지에서 오신 이주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중 한 분이 '제주 이주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 내려와서의 나의 모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대화할 때 본론부터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화는 절대 본론부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야기가 재미없어져서 수습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이 분이 항상 본론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타입이셨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서 본론을 나중에 쓰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만화를 만드시고 있더라고요. 꾸준한 분이신데, 이런 꾸준함이라면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계속 올려서 나중에는 수강생과 강사가 아닌 작가 대 작가로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 떠오르네요.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웹툰 수업은 작가 양성을 위한 수업이 꽤 있어요. 근데 작가 양성 수업은 요구하는 그림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렵잖아요. 반면 제 수업은 진짜 동그라미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림에 굉장히 자신감 없었던 분이 나중에는 나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에 오르는 그림들은 사실 보면 웹툰처럼 화려한 것보다는 친

근감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림은 그렇게 막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렸던 이 캐릭터가 그 캐릭터라는 걸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이제까지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 없는데 제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분이 사실 수업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문제 때문에 수업을 하차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웠나 봐요.

전화를 주셔서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잘 배웠다. 그만두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녹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녹음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보람을 많이 느끼죠.

**Q. 수업의 성비와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제 수업은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요. 가끔 어린 친구들이 학교가 일찍 끝나는 경우 부모님이랑 같이 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30 - 40대 여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확실히 있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뭔가 행사가 있으면 단체 결석을 한다든지. 어쨌든 20대에서 50대까지도 다양하게 있으세요.

**Q. 캐릭터 표현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단순한 건가요?**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2% 밖에 없다는 거! 그 2%로 잘생김과 못생김이 나뉘진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나면, 내가 눈 위치를 조금만 다르게 그려도 다른 얼굴이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 캐릭터를 보면 정품도 있지만 인기가 많으면 복제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복제품 미모가 약간 좀 덜 귀여워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캐릭터를 디자인하신 분이 딱 정해진 위치나 크기에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장동건 닮은 사람들은 많은데 장동건처럼 잘 생긴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눈, 코, 입 모양새는 똑같은데 장동건은 미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거고 다른 분들은 살짝 아쉽게 빛나는 그런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모양을 잘 관찰하고 그 모양대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잘 그리면 굉장히 잘 그려 보여요.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큰 게 보기 좋게 완성된다. 이것만 아시면 나중에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Q. 학생들에게 비율을 가르치는 수업도 많이 하겠네요.**

그거는 제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 증빙 사진을 보여드리죠. 요즘 어떤 증빙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냐면요 아기자기한 캐릭터 도시락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상한 도시락, 예쁜 도시락. 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요?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그제야 우리는 똑같이 그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차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를 깨달으세요. 즐겁고 기억에 더 많이 남으시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동작 같은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저는 먼저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해요. 제가 서있는 모습을 먼저 그리고 여기서 조금 수정해서 달리는 모습, 더 빨리 뛰는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 갑자기 뛰는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해 하시거든요. 서있는 모습은 웬만하면 다 잘 그리시니까 이걸 토대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이게 허들이 처음에 너무 높으면 넘을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수강생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들 생각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허들을 낮춰주는 임무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중개소 수업이 사실 문화예술인프라가 없는 곳을 위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겨난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창업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 제주도민은 20분만 넘어가도 장거리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수업을 표선에서도 하고 제주시에서도 하니깐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항상 시작하고 있어요. 수강생분들도 이런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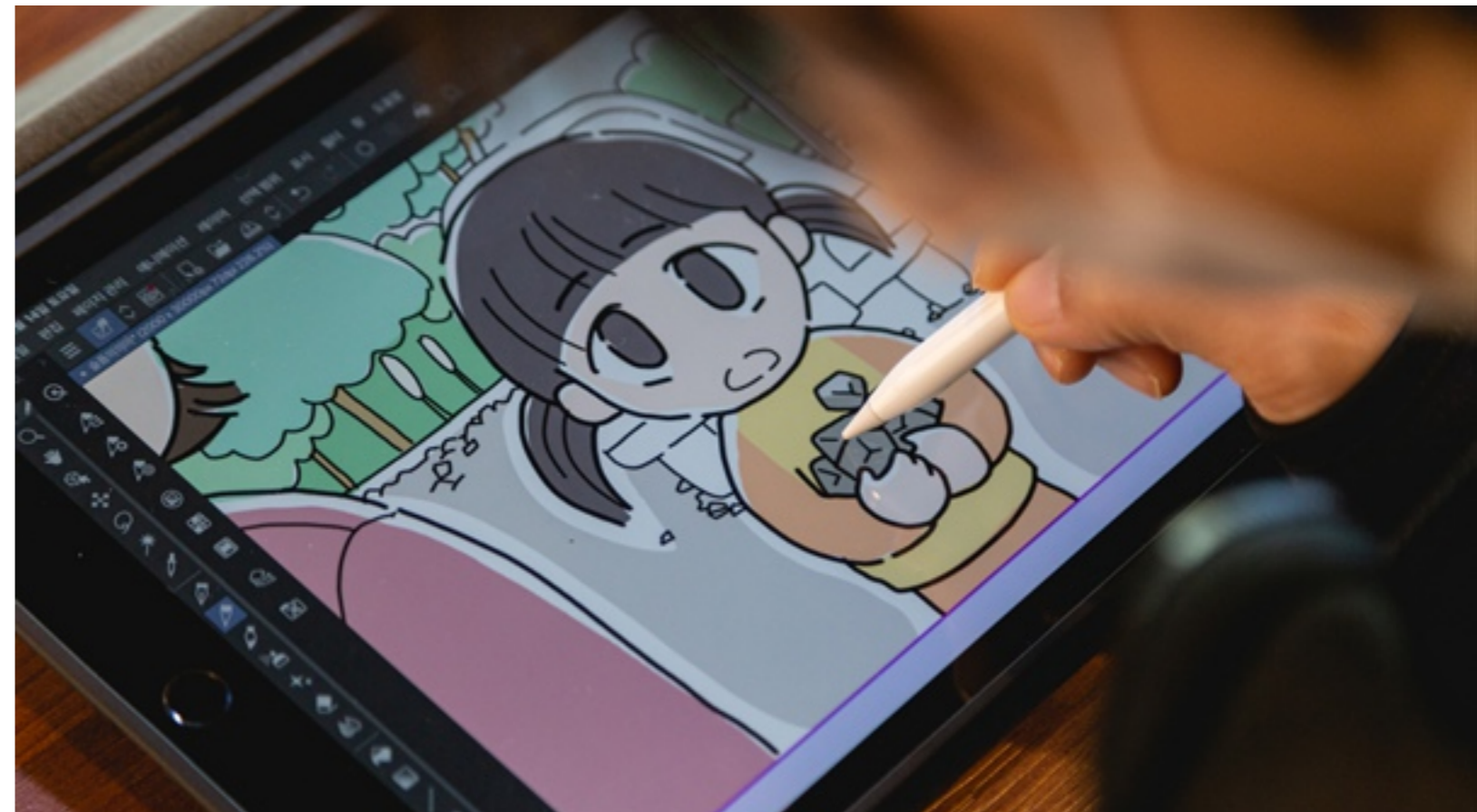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만화를 그리고 강사를 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이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받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연재를 준비하는 작가들이 매주 꼬박꼬박 작품을 그려야 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인기 있으려면 매주 꼬박꼬박 약속을 지키면서 작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인스타가 강제력으로 작용하는 세상도 아니고, 작은 시간이 모이면 큰 시간이 되니까 수강생분들이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방끈이 두꺼워진 계기가 혼자 공부 안되기에 학교를 등록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삶에 필요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려면 강제력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중개소를 통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데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Q. 강사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제주도에 설화와 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야깃거리는 많은데 사실 '설문대 할망'이라든지 유명한 것들만 사람들이 알잖아요. 지역별로 알고 보면 재미있는 숨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만화로 그리고 싶어요. 예전에 문화중개소 수업으로 한 적이 있는데, 제주 마을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그때도 수업을 즐겁게 했거든요. 이런 수업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한 번 나만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시가 나보다 잘 그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웹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테스트하면서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여러분의 수업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문화중개소팀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끝까지 계속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 얘들아! 나랑 같이 놀래?

## 이영희

"생각보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면 자기를 믿어주고 알아봐 줬다고 생각하는지 행동이 변하고,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읍민속마을 내에서 한국놀이 개발연구소라는 놀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희입니다.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나랑 같이 놀래?’는 기본적인 전통놀이뿐만 아니라 일반 놀이용품을 이용하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의 놀이용품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놀이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동생과 나만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배웠던 놀이를 떠올리고, 즐겁게 놀 수 있게요.

### Q.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있다 보니 학년에 갭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한 수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학년이 고학년을 보고 배우는 점이 많더라고요. 이해하고 익히는 속도 같은 면에서요.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경험해 봤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 Q.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운 놀이를 가지고 바깥에서도 활용한다고 하나요?

네, 그랬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모님은 저번에 배운 놀이 때문에 애들이 하루 종일 그것만 하자고 해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실뜨기 숙제를 주고 숙제를 한 친구에겐 선물로 실뜨기를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숙제를 했는데, 안 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실뜨기를 줬어요. 대신 집에서 이걸 가지고 놀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선생님하고 한 약속 때문에 진짜 열심히 실뜨기를 했대요. 이게 아이가 혼자 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계속 같이 해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푸념 아닌 푸념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듣기 좋았어요.

### Q.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만나려면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놀이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성읍민속마을 공방도 3월부터 운영하게 됐고요. 제가 찾아가는 것도 찾아가는 거지만 언제든지 필요한 친구들이 올 수 있게요. 저는 아직 초기라서 인프라가 별로 없는데 제주문화중개소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곳에 합류하게 된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Q. 강의를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은 누군가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약간 거칠게 행동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아이들과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을 하죠. 제 활동에서는 대표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루에 두 명의 대표를 뽑아서 각 대표 별 1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어느 날은 마음이 아픈 한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뭘 낼지 귓속말로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믿어주고 알아봐 줬다고 생각하는지 행동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힘을 받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했을 때의 에피소드도 있어요. 두세 번만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신 학부모님이 세 번, 네 번 나오시더니 지금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요. 전통놀이 자격과정을 받으시고 강의를 준비 중이시거든요. 이때 제가 바라보는 놀이의 장점이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 받은 거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Q.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처음 올 때 멀쩡했던 아이들이 집에 갈 때는 에너지를 다 쏟아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냥 아이들이 잘 놀았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제 노하우인 거 같아요.

**Q. 아이들과 놀기 위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선 저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낳아 주셨어요. 제 체력은 남들과 조금 다른 거 같거든요.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해요. 수업 전 같이 트랙을 두 세바퀴 돌기도 하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 스케줄로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같이 하는 습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강사로서 참여해 보니 어떠신가요?**

제주문화중개소를 통해 제 프로그램들을 정립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가진 프로그램들을 한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게 하고, 더 좋게 변형시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맞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주문화중개소라는 크고 좋은 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Q. 실제로 선생님이 만든 놀이용품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오늘도 수업에서 제가 만든 놀이용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밤새 신문지를 붙이고 붙여서 큰 원을 만들었어요. 이걸 바퀴처럼 돌리면서 노는 놀이를 만들어보려고요.

근데 이게 오늘 쓰자마자 다 찢어져 버렸어요. 요즘엔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다음엔 어떻게 보강해야겠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내년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싶어요. 상반기 어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두 열정적이었고 저희들 안에서 라포도 잘 형성돼서 정말 좋았거든요. 성인반은 대부분이 엄마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해서 결석의 변수가 너무 많았던 문제는 있었지만, 자격 과정을 밟는 학부모님을 보면 욕심이 들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분들이 학교 수업에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Q.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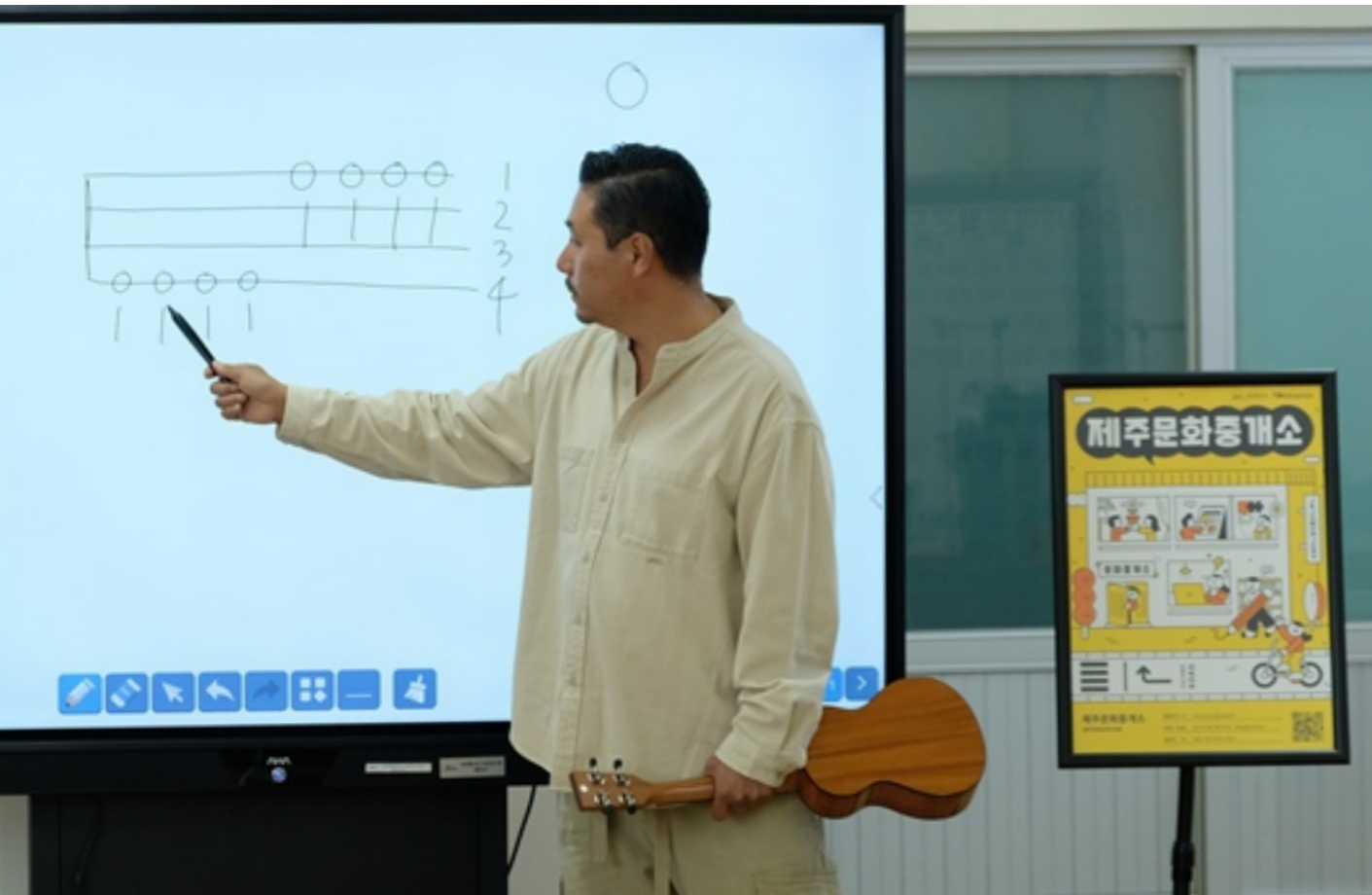
최대한 강사님들의 상황을 맞춰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처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좋은 공방을 찾았다고 하니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주문화중개소는 저한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너무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시니어 우쿨렐레 합창단

## 장창언



**"시니어층이 생각보다 문화 활동을 많이 하세요. 단원들이 공연하러 다니면서 인정받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미 이뤘어요. 이젠 퀄리티를 높여야 해요. 시니어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해요."**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수리에 사는 장창언입니다. 2013년도부터 청수리에서 우쿨렐레를 보급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12 - 2013년에는 청수 아동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성인 대상으로 우쿨렐레 강의를 열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니어 합창단 프로그램은요 우선 50세 이상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니어분들이 우쿨렐레를 배우고, 악기 연주를 통해 노래도 같이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재능봉사를 진행하는데요. 재능봉사를 지금까지 한 여섯, 일곱 번 했어요. 한경면에 있는 마을 노인회를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며 재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Q.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내, 저희 마을에 우쿨렐레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시니어층이 생각보다 문화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나아가서 재능봉사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려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 Q. 강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시니어 프로그램을 하기 전까지는, 주로 국제학교 엄마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성인반 수업을 할 때는 단순 레슨에 멈췄어요. 그런데 시니어 팀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스타들이 많아요. 전국 제주도 시니어 노래자랑에서 우승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경면 노인회 마을 공연에 가면 아주 극찬을 받아요. 저희가 한 시간을 공연하는데 우쿨렐레 공연, 개인 노래 공연이랑 색소폰 공연까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다니니까 반응이 뜨거워요. 이게 청수리에서 한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겪은 최고의 에피소드예요.

**Q. 첫 번째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력이 정말 달라지죠. 탁월한 가르침 덕분에. 그리고 재능봉사 공연도 나가다 보니까 결집력이 달라졌어요. 제가 서포트는 하지만 진두지휘를 하지는 않거든요? 단원들끼리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Q. 수업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번 알려 주세요.**

일단 단순히 교육에서 멈춰버리면 그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에 목표를 둡니다. 강의비 같은 것에 치중하면 지루해서 못 가르쳐요.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장에는 끝이 없거든요. 이런 재미로 저분들이랑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공연 섭외가 와요. 전국 시니어 우쿨렐레 연합회 같은, 전국 단위의 페스티벌에도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무대도 만들어 주고 참여할 수 있게 단원들한테 성장의 기회를 계속 줘요. 그냥 레슨에서 끝나지 않고 단원들을 계속 성장시키는 게 저의 (수업) 노하우인 것 같아요.

**Q. 문화중개소 수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무료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강사비를 지원받은 게 좋았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뭔가에 기대는 느낌이 든 게, 제가 강사로서 활동한 지 7~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예를 들어 확실한 강사의 자격이 주어진다던가. 이런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맘에 들었어요. 아직 강사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문화중개소의 일원이구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약간의 소속감이 들어서 좋아요.

**Q. 몇 년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강의를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강의 하시면서, 언젠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저의 목표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단원들이 공연하러 다니면서 인정받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저는 이미 목표를 이뤘어요. 이젠 퀄리티를 높여야 해요. 지금 1단계로 공연을 했다면, 내년에는 2단계로 공연하고, 그다음에는 3단계 레벨로 공연하고. 그렇게 단원들의 실력이 점점 단단해져서 정말 프로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저의 궁극적 목표예요.

**Q.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분들의 열정을 좋게 평가받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저분들은 선수고, 저는 감독이니까. 선수들이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기 잘한다. 또 불러주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해요. 이 인정이 시니어들한테 힘을 준다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노래만 불러도 할 수 있구나. 저 팀에 들어가면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거죠. 그다음엔 제가 시니어가 되잖아요. 저도 시간이 흐르면 시니어가 되잖아요. 시니어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해요.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제주문화중개소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 드릴게요.**

시니어 우쿨렐레 팀을 계속 성장시키고, 한경면에서 음악 하는 사람들을 계속 늘리고 싶어요, 특히 시니어 우쿨렐레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는 게 목표예요. 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은, 강사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강사분들이 함께 모여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의 팀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영어 그림책 놀이터

**김보령**

"어린 친구들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놀이터 식으로 접근하는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이자 아티스트면서 N잡러고요. 현재 제주 구좌읍에 살고 있고, 영어를 20년 넘게 강의하고 있는 김보령입니다.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어 그림책을 베이스로 해서 아이들이랑 영어로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같이 영어로 대화도 해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 Q. 아이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1~2학년 친구들이 주로 수업을 들어요.

## Q. 아이들이 영어를 잘 이해하나요?

영어를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영어를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는 영어를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한테는 영어로 노니까 재미있는, 말 그대로 놀이터가 되어주는 수업입니다.

## Q. 수준 차이로 인해 불평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었나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이중 언어를 써요. 영어로 먼저 말하고 한국어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영어로 말하는 것도 일종의 지시어잖아요. 그러니까 "Open the book"을 말하면서 손으로 책을 여는 시늉을 해줘요. 그 다음에 "Look at me" 하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까지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영어를 못해도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Apple, Water 이 정도는 접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영어를 되게 재미있게 배웠어요. 공부, 문법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외로 제 나이에 비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서 재밌게 배웠어요. 영어는 점점 공부로 가면 친구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재밌어서 그런지 계속 재밌었고요. 재밌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또 잘하게 되

니가 더 하고 이런 선순환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친구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놀이터 식으로 접근하는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이 수업 한 학기 전에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클래스를 먼저 하고 이어서 지금 '영어 그림책 놀이터'를 하게 됐는데 그 수업을 들은 엄마의 아이가 지금 이 수업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이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 수업에서 정말 첫 번째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I see it" 했다가 "I saw it" 이렇게 수정도 하고요. 근데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배운 책으로 아이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줬대요. 예전부터 듣기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엄마 앞에서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말문이 좀 트인 거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첫 강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서로 잘 모르니까 좀 서먹함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서로 친해지거든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어려워지는 점도 있죠. 처음에는 무슨 활동을 해도 서먹하니까 본인만 이렇게 저렇게 해요. 이제는 서로 친해졌잖아요? 팀을 만들어 주고 게임을 하면 단합이 정말 잘 돼요. 반면에 너무 친하니까 시끄러워진 부분도 있고요. 장단점이 공존하는 거 같아요.

###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저는 좀 당근을 잘 쓰는 편이에요. 게임을 할 때도 점수가 높은 팀에게 마이썬을 하나 더 주겠다고 하거나 이렇게요. 아이들은 사실 되게 작은 것에 열을 올리거든요. 때로는 경쟁심을 조금 부추겨서 열을 올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애들한테는 좀 길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작은 세션으로 쪼개는 편이에요. 활동을 쪼개서 중간에 환기 시키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애들은 어른과 달리 집중력이 짧아서 수업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수업 기획을 잘 이행할 수 있게 서포트를 잘 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물어 봐주시기도 하고, 뭐가 잘 연결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잘 해결해 주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클래스를 열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기획서를 받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도 한 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라 영어나 외국어 같은 인문학, 손으로 만들기를 하는 공예, 그림 그리기, 놀이, 노래.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화 부분들을 섭렵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강사로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 Q.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향후 계획이요? 제가 안 그래도 여쭙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저는 영어 강사로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림책 작가가 됐어요.

제가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두 권의 영어 그림책을 냈거든요? 이 그림책 만드는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올해 꾸준히 해왔어요. 하반기에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몇 명 모아서 12월에 시작해 볼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크게 문화중개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수업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Q. 애들이 선생님이 그림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나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스튜디오에 제가 그린 그림책이 있어서 애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선생님은 미술 작가예요? 아니면 영어 선생님이예요?"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둘 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영어 그림책으로 낭독도 해보고 목소리도 녹음해 보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그림책 놀이터 수업에서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받은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뒤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 하고 그림을 그려 보기도 하고, 거기 나온 그림을 단어로 써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은 아직 문장으로 쓰지 못하지만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문장으로 쓰는 연습도 할 수 있겠죠.

### Q. 마지막으로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좀 더 다양한 문화 수업이 시외권에 더 많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제주 시내에는 무료 수업의 기회가 많잖아요. 또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런 전시와 연결된 수업도 다 제주 시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도심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보통 읍면 단위에 사는 엄마들은 너무 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구석구석 우리 동네 이야기 2

**김소희**



**"동네 아이들과 함께 진짜 우리 동네의 구석구석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더미북으로 연극 대본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 연극을 하고 있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진짜 우리 동네의 구석구석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작은 더미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미북으로 연극 대본도 만들어보는 '구석구석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Q. 아이들이 직접 만든 대본을 가지고 실제 연극도 하나요?**

연극까지는 못 가고 대본 만드는 작업까지만 수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본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된 대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본인이 쓴 글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보여지면 조금 신기해하더라고요. 상반기에 더미북을 제작해 봤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하반기 프로그램에도 더미북을 만들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원래 촌, 그러니까 조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골 아이들에게 정감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화중개소의 취지가 인구소멸지역 아이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저와 잘 맞겠다 생각해서 프로그램 지원서를 냈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모두 활동하게 됐어요.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도 연극 수업을 나가요. 에피소드라기보다 다른 점이 있는데,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확실히 연극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업에 참여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도서관 친구들은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수업에 조금 당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수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러 온 거지 학교에 온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곳 그리고 문화중개소라는 수업은 놀러 오는 건데 제가 너무 이걸 학구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본의 완성도를 조금 낮추고 조금 더 놀아주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조금 쉽게 풀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Q. 아이들 맞춤형 수업방식으로 진행하며 실제로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나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Q. 혹시 그러면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와 연령대,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 인원은 열아홉 명에서 스무 명 정도 돼요. 나이는 일곱 살부터 5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더 잘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예뻐요.

**Q. 일곱 살부터 5학년까지 편차가 꽤 큰데 수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학교 수업도 1~2학년, 3~4학년, 5~6학년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마을 특색에는 조금 더 맞는 거 같아요. 마을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 때 다섯 살 동생도 있고, 아홉 살 언니도 있고, 5학년 형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마을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어울리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거 같아요. 모둠 활동도 예전에는 제가 팀을 지정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냥 친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Q. 이야기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으로 하셨나요?**

주로 일단 전래동화는 다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토끼와 거북이 작업을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뒷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북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라고 질문하면 “엄청난 백만 부자 돼가지고 돈 펄펄 쓰며 살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토끼는 토끼 가문에서 추방 당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거든요. 그것을 먼저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봐요. 그럼 대본이 되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작업이 끝나고 다음 작업으로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아?”, “수상한 사람 있지 않아?”, “좀 특이한 아저씨들 없어?” 질문하면 아이들은 “있어요!!!” 외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술 먹는 아저씨, 담배 피우는 아저씨.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요. 앞서 토끼와 거북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두 가지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틀에 맞는 대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 가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Q.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가 담겨 있거나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엿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나요?**

그래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를 계속 쳐다본대요. 그 할아버지를 그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계속 너를 쳐다봐? 너 그냥 아고와서(귀여워서) 쳐다보는 거 아니야?” 하면 아니라고. 계속 놀 때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만 따라다니는 것 같대요.

되게 수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 얘기를 더 하려고 하면 아이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단절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정 환경도 조금 보이기는 해요. 명품 브랜드를 계속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보지 못했으니까 사소한 놀이에 대해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런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아이들의 환경이 조금 유추되기도 해요.

이건 상반기에 했던 더미북이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한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게 그 아이가 쓴 글이거든요.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등장인물에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그린 것도 있어요. 함덕에서 이상하게 춤추는 아저씨인데 팬티하고 런닝만 입고 있었대요. 여기 드림 치는 아저씨도 있고요. 이런 더미북을 받으면 애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막 판타스틱하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첫 수업에 한 번 “나와서 너 소개해 봐!” 이랬는데 소개 못하던 친구들이 마지막 수업에는 말을 되게 잘하는. 그게 아무래도 분위기에 친해져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아이의 표현력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크게 변하는 건 없지만 그 분위기와 그 활동의 흐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제가 일곱 살 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보이니까 상황별로 대처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만약 5학년 친구가 어떤 속상한 말을 한다면 저 친구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 보고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지, 살면서 터득한 방법을 수업에 활용하면 잘 통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구나 이거지 따로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기를 안 낳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학교 예술강사도 하고 다른 지원 사업의 교육 활동도 하는데요. 제주문화중개소는 제주 전 지역에 강사가 분포되어 있잖아요. 강사 입장에서는 이동 거리 때문에 멀수록 힘들지만 강사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많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차이점을 확 느꼈어요.

그리고, 매년 분기마다 서류를 통과해야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강사 등급도 나눠져 있거든요? 너무 치열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서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르치려면 강사의 질도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사를 관리하는 부분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강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협조를 잘해 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문의 전화를 하면 공무원처럼 본인 관할이 아니라고 피하는 거 하나없이 엄청 친절하세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제주문화중개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도 좋지만, 조금 더 다양한 문화예술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주도민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Interview

러브, 펫 + 사람 캐리커처

백금아



"캐리커처가 내성적인 사람을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는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만화 작가협회 그리고 한국만화가 협회에서 캐리커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백금아입니다. 현재 제주 캐리커처 해피클럽 대표이기도 해요.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명은 ‘러브, 펫+사람 캐리커처’인데 이게 애니메이션 이름을 패러디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요즘은 기획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짓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그 반려동물을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어요.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제주도 캐리커처 작가 1세대나 마찬가지예요. 캐리커처가 원래 카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시사만화를 그리셨던 분이 캐리커처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캐리커처를 처음 알았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배우고 시작했죠. 저는 주부라서 돈도 벌어야 했는데 이게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제 자신이 캐리커처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수업을 통해서 캐리커처 작가를 양성시키기도 했고요. 적성에도 맞고 작가들을 양성시키는 게 좋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Q.반려동물과 사람을 그리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진 않았나요?**

저는 독학으로 캐리커처를 배웠거든요? 전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쪽 그림을 그렇게 그려왔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독학을 하면서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실제로도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재밌어하는데 저는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정말 빨리 가고요. 이번 수업은 동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동물을 그리는 걸 어려워해요. 동물들의 행동을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좀 자랑 같지만 저는 한 번 지켜보면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그 패턴에 맞게끔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면 학생들은 곧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강생들이 동물 그리는 걸 다들 좋아해요.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테스트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강생 그림을 모두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요. 이제는 그림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충분히 행사를 다녀도 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세요. 저는 약간 미숙할 때 행사에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러면 스스로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떨리죠. 하지만 저는 그 떨림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남 앞에서 나서지 못했던 분들도 같이 행사에 가려고 “저도 갈게요!”라고 해요. 실제로 그분은 자신을 바꿔 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걸 보면 캐리커처가 내성적인 사람을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저는 속전속결로 가르쳐 주는 편이에요. 빨리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빨리 작가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줘요. 팀에 소속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건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이거든요. 지금은 퇴직한 사람들이 캐리커처를 엄청 하고 싶어 하세요. 재밌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때 제가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드리거든요? 수업도 가르치고, 액자도 드리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좋아하시던 모습도 생각이 나네요.

**Q. 사람마다 그림 그리는 능력이 달라서 편차가 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게 다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이끌어 낼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제주문화증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제주시에는 제주문화증개소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거의 90%가 몰라요. 학생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다녀요. 심지어 제 수업을 듣고 싶어 오신 분들에게도 제주문화증개소를 통해서 오시라고 얘기해요. 수강신청이 치열하고, 그 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제주문화중개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수업을 기초하고 심화로 나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캐리커처는 단순히, 간단하게 그리는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가르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빨리 투입 시킨다고 했잖아요? 많은 작가를 양성하고 싶어요. 저는 현장에 나가면 제가 빨리 그린다고 해서 페이를 더 갖지 않아요.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줘서 실제 여러 작가들을 양성했구요. 캐리커처 봉사를 가려고 하면 그만큼의 작가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을 양성하고 싶어요. 제주문화중개소는 지금까지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저도 학교 수업이랑 여러 수업을 다니지만 강사들에게 수업료를 잘 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의 강사비가 나오는 것도 대우라고 생각해요. 우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주문화중개소 수업을 계속하고 싶고요. 많은 작가들을 양성하고 그 작가들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Interview

# 희곡낭독 연극살롱

## 한은주



"저는 연극의 매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인간 대 인간에 대한 행동을 표현하는 무대 예술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확신해요. 수강생분들이 연극을 직접 해보는 것은 제한이 많잖아요? 하지만 관객으로서의 접근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연극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된 수준 높은 관객이 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임으로써 매력을 느끼게 되죠."

**Q. 자기소개 부탁 드릴게요.**

저는 제주문화증개소에서 ‘희곡낭독 연극살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극배우 한은주입니다.

**Q. '희곡 낭독 연극살롱'을 소개해 주세요.**

글자 그대로 희곡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프로그램이에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연극의 기초가 되는 텍스트인데 이것을 소리 내어 읽어요. 그러면서 내용도 파악하고, 인물을 이해하면서 인간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죠. 연극을 창작하고 연기를 가르쳐서 무대에 오른다는 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제약이 많거든요? 반면 이 수업은 큰 장비도 필요 없고 책과 함께 둘러앉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많은 훌륭한 작품을 제약 없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연극을 통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Q. 연기도 가르쳐 주시나요?**

연기를 배우고자 수업에 참여하신 분도 사실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의 접근이 조심스러워요. 연기를 지도하는 수업이 아니고 연극의 재료인 텍스트를 읽으면서 연극을 만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물의 행동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반응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연기가 목적이 아니었던 분들도 어느덧 입체적인 낭독을 하시고요.

**Q. 연극 대본은 기존에 있는 대본을 가지고 낭독하나요? 아니면 직접 만든 대본을 가지고 낭독하나요?**

연극은 작가가 기존에 다 정해 놓은 텍스트로부터 출발하는 연극이 있고,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텍스트를 완성시키는 작업도 많이 있어요. 저희의 경우는 세계 연극사에서 이미 좋은 작품으로 인정 받은 기존 작가의 책을 읽어요.

**Q. 배역은 제비뽑기로 정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뽑고 있어요. 사실 실제 프로의 현장이라면 캐스팅이 아주 살벌한 과정이죠. 근데 저희는 즐기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역할 배정도 자연스럽게 해요. 제비뽑기도 하고, 그때그때 원하는 배역을 자원해서 맡기도 하고, 심지어 그냥 앉은 자리 순서대로 돌리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제가 지정해 주기도 해요.

**Q.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연에서 관객을 만나지만 그것 말고 연극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업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후로 꾸준히 이걸 하고 있어요.

**Q. 강의를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희곡낭독 연극살롱’ 수업은 하반기에 대포동 마을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수강생 분께서 자발적으로 조명을 가져오셨는데 다른 분들도 하나씩 조명을 챙겨 오시더라고요.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여분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불을 다 끈 상태로 개인 조명을 키고 희곡을 읽고 있어요. 덕분에 집중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아졌죠.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제 수업은 참여도가 좋은데 이분들 직업이 정말 다양하세요. 상반기 마지막 수업에 낭독 공연처럼 작품을 완독해 봤는데 낭독이 끝나니까 음악 하시는 분이 즉석에서 연주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경상도 분이신데 사투리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연기란 게 각자의 개성을 지우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진짜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용에 맞게 글을 읽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감동적이었던 건 어떤 참여자분께서 “희곡을 읽는 순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 큰 교훈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역할이든지 낭독을 하는 순간에는 그 캐릭터의 상황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주도적인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Q. 첫 수업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수강생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이들 같이 큰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긴 거 같아요. 처음에는 작품 해석을 논하고자 하면 다들 너무 조심스러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희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돼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말씀하세요. 그럼 서로가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기해 하죠.

**Q. 선생님의 강의 노하우를 알려 주세요.**

저는 연극의 매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인간 대 인간에 대한 행동을 표현하는 무대 예술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확신해요. 수강생분들이 연극을 직접 해보는 것은 제한이 많잖아요? 하지만 관객으로서의 접근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연극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된 수준 높은 관객이 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임으로써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수업을 그냥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 역할이 중요하니까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Interview

##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김선동



**"아카펠라는 멤버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서로 정말 친해 야 팀 안에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노래할 수 있고, 화음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 Q. 제주문화중개소 강사로서 참여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외의 것들을 다 기획해 주시잖아요. 사람 모집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더 돋보이게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돈이 책임감의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유 속에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료라고 해서 참여자들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료수업이라서 안 온다, 무언가를 걸어야 한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봐요.

###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어떤 분이 수업에 오셨는데 본인의 나이가 많은 거 같다고 그만두시는 일이 있었어요. 시니어 반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양하게 구성된 반을 편성하고 싶었거든요. 드라마 속엔 남녀노소 다양한 인물이 섞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대본을 모두 이어 붙여서 한 편의 연극으로 읽는 것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낭독공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중복해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경험이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제주도 구석구석 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펠라 강사 김선동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며 한국 아카펠라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고, 그 외 문화예술교육 쪽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수업입니다. 보다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약기를 배워야 하는 그런 허들 없이 누구나 목소리만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Q. 그럼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문화중개소가 시범사업일 때, 담당자 분께서 “서귀포 내에 아카펠라 팀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실만한 분이 제주도에 없어서 혹시 서울에서 내려와 줄 수 있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 내려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5년째 매주 강의하러 오고 있습니다.

**Q.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서귀포지역에서 아카펠라 팀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수강생 중 비자발적인 이주민이 계셨어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방 발령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서귀포로 이주해 온 거죠.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서귀포에 와서 많이 심심하셨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수업을 하는 동안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분들끼리 같이 어울리곤 했어요. 소리에 울림이 있는 곳. 호텔 로비라든지 아니면 동굴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시기만 하면, 본인들끼리 아카펠라를 연습해서 영상을 올리고 그랬거든요. 수강생들의 이런 열정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카펠라는 멤버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서로 정말 친해야 팀 안에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노래할 수 있고, 화음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멤버십에 굉장히 신경 쓰는데, 이제는 되게 끈끈한 인간관계가 되면서 노래 실력도 함께 성장한 것 같아요.

**Q. 수강생 중에 5년 동안 수업을 계속 이어서 듣고 있는 분도 있나요?**

5년째 되신 분들도 있고, 올해 처음 들어 오신 분들도 있어요. 모든 멤버가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해에 들어온 분들끼리는 동기 느낌이 있어서 더 친하고 끈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서 약간 동호회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해요. 5년 되신 분이든 처음 오신 분이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Q. 5년째 하신 분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 있을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안에서 잘 융화가 되나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음악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거든요. 5년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안 될 테고요. 그렇다고 5년 된 사람한테 맨날 똑같이 쉬운 곡 하자고 하면, 그분들은 또 지루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의 방법은, 첫 번째로 난이도는 쉽지만 있어 보이는 곡. 그리고 노래 자체가 공감되는 곡들 위주로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팀을 나눠서 팀마다 하고 싶은 곡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팀 구성원에 따라서 어려운 곡을 할 수도 있고, 쉬운 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모든 동호회가 마찬가지지만, 오래되신 분들만 붙잡고 있을 순 없어요. 결국은 늘 새로운 물이 들어와 계속 물갈이가 되면서 커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인원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노하우라고 하기엔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우선 제 강의에서 많이들 얘기해주시는 게 수업의 흡입력인 것 같아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20대부터 70대까지 수강생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흡입력 있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하는 거죠. 아마추어 모임에서는 재미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우리가 해냈다는 뿌듯함.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지금 제주도 아카펠라 팀은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 시기에는 못했지만 매년 발표회가 있어요. 결과 발표회처럼 모든 강좌 수강생이 다 모여서 발표했는데, 올해 본 사업이 되면서 범위도 전 도로 늘어났어요. 저희 아카펠라 팀은 자체 공연이 가능한 역량이 되니까 발표회 때마다 공연을 진행해요. 이런 공연을 한번 하면 수강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매우 커서 아카펠라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화중개소 강좌를 들으러 오셨던 분 중, 전공이 실용음악 보컬인 수강생분들을 모아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팀도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Q. 문화중개소 프로그램 강사로서 참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육지에는 없어요. 다른 강사님도 제가 몇 분 봤었는데, 정말 굉장하신 분들이예요. 그런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제주도민들이 정말 행운인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서 서울 사람으로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제주도의 아카펠라 저변을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카펠라 그룹은 사실상 서울에만 있고 지방 쪽은 거의 활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카펠라라는 장르가 악기를 쓰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니까, 제주도의 자연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국제 아카펠라 페스티벌 같은 걸 열어서, 외국인분들도 방문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문화중개소에서 하시는 방향성을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문화중개소에서 정말 열심히 홍보하시는데 도민들과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워 보여요. “서귀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라면서 시범사업 몇 년이 지나서야 오신 수강생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과 발표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Interview

# 궁중채색화 : 비단에 그리는 화훼화

## 윤정환

**" 궁중채색화는 동양화. 즉, 전통 회화의 한 장르로 보시면 돼요. 궁중 내에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모든 것들. 임금님의 초상, 어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전통미술을 현대적으로 풀어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궁중채색화 수업이에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문화중개소에서 궁중채색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동양화 작가 윤정환입니다.

**Q. 궁중채색화는 어떤 수업인가요?**

궁중채색화는 동양화, 즉, 전통 회화의 한 장르로 보시면 돼요. 궁중 내에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모든 것들. 임금님의 초상, 어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전통미술을 현대적으로 풀어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궁중채색화 수업이에요.

**Q. 궁중채색화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수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나요?**

아주 자세히 아시는 분은 없어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기법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민화 수업 혹은 민화 학원을 통해서 전통 채색화에 대해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오시는 정도예요.

**Q. 비단에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종이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나무 100%로 만든 고급 한지 같은 경우에는 비단만큼 비싸요. 왜냐하면 손으로 다 만들고 도침도 해야 되거든요.

**Q. 그러면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긴장하지 않나요?**

긴장을 많이 하세요. 왕의 초상화를 그릴 때 쓰던 재료니까 아마 도화서 사원분들도 굉장히 긴장해서 그렸을 거예요. 어명이잖아요! 황제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법 자체도 과감함과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정확도나 객관적 사실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도 비단은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과성이 종이보다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동양학과 전공자들도 현상 모사를 할 때 비단에다 먼저 수업을 해요.

종이에다 하는 삼합장지나 채색화를 하기 전에 모사를 하는데 그걸 전사라 그래요. 그대로 옮기는 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오히려 종이보가 더 용이하거든요.

**Q.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통 채색화의 인물화, 서양화의 초상화 모두 마찬가지로겠지만 누군가의 초상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물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들 있잖아요? 해바라기라던가, 자생하는 수국이라던가, 동백이라던가.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꽃 몇 개를 선정해서 도안을 만들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리기 쉽게요. 민화에도 그런 도안이 있거든요. 창작 민화든 현상 모사를 하는 민화든요.

**Q.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그냥 제가 동양화 작가이니까 작품을 하잖아요? 인물이거나 동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한지나 종이보다는 비단을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한지는 장인들이 아무리 도침을 정교하게 잘한다 해도 비단보다 정교하게 털 묘사를 못하거든요. 도침은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에요. 제 경험상 말털이나 개털까지는 종이로도 괜찮은데 조금 더 가는 고양이 털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단이 생각보다 망칠 확률이 적어요. 밑그림을 전사해서 그리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오히려 쉬운 측면이 있고요.

**Q. 수강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하우가 있나요?**

수업에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면 회화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민화의 오리지널은 궁중채색화이다. 대표적인 화원 화가, 정조대왕 어진을 그린 김홍도는 궁중 내에서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서예라든가 문예라든가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송하명호도는 인기가 많아 민간에서도 보았을 것이며, 상상에 의거해서 모작을 하게 된 게 호랑이 민화의 시초다. 민화라는 부분이 영조, 정조 시대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중산층이 대두될 때 많이 유행했는데 민화는 서민들이 그리는 그림이니까 호랑이를 탐관오리에 비유하고 까치를 백성으로 비유하여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라고 편의상 설명을 드려요. 궁중 화원에서 먼저 회화의 트렌드를 이끌고 서민, 그러니까 대중들이 따라갔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확실히 편한 것 같더라고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작가로 활동한지 몇 년 안 됐어요. 동양화를 대학원까지 전공하고 입시 미술학원 원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17-18년도 정도에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신인 작가의 상황이고 경력도 몇 년 안됐거든요. 하지만 학원을 운영해 본 자로서 입장이 강익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무시 못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행정 쪽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해 주시니까 수업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강사로서 굉장히 감사하죠.

Q.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제주문화중개소의 취지 자체가 인구소멸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인다는 그런 커뮤니티 아트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저도 커뮤니티 아트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명분이 인구소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요. 취지 자체도 좋고 공감은 하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보다 길 때가 있어 아쉽더라고요. 사실 위미에서 수업을 할 때 제주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민화는 지역마다 수업이 다 있지만 궁중채색화는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재료적인 문제도 있어서 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동시간을 감수하고 오시는데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위험하잖아요? 조금 더 시간효율이나 안정성 측면이 고려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Interview

# 내 것이 되는 매력적인 제주도 풍경 사진

## 이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사진을 매개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제주도는 사진으로 교류하기 매우 좋은 지역이니까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겁입니다. 사진, 상담 심리 등의 일을 하며 사진과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쉬고 싶을 때 쉬어라>, <메구스타 쿠바>, <돌에 새긴 희망>, <미륵을 찾아서>, <마지막 은둔의 땅, 무스탕을 가다> 등 몇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 것이 되는 매력적인 제주도 풍경 사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리 멋진 풍경 사진도 내 사진이 될 수 없다면 감상자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멋진 풍경 사진을 내가 촬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구나 내가 사는 곳은 제주도인데!’란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구요. 이렇게 제주도의 멋진 자연을 내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론보다는 실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사진을 좋아해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사진을 매개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제주도는 사진으로 교류하기 매우 좋은 지역이니까요.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처음엔 많은 분이 참여해서 놀랐고 그 후엔 참여자들의 꾸준하고 성실하게 강의에 참여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날에는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강생들에게는 “사진 용어를 쓰지 않고 사진 원리를 배울 수 있어서 카메라의 기능을 습득하기 쉬웠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강의를 들은 후에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결과물이 좋아졌습니다. 기능을 잘 쓰는 방법과 사진 프레임 안에 필요 없는 피사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진의 원리를 알게 되면서 기능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첫 강의 때,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습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강의 때 사진은 초반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1대 1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무엇보다 문화향유의 기회가 더 넓어지길 희망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강의 참가비는 100% 무료이지만 일부 유료 참가비가 책정되었으면 해요. 혹은 참가율을 생각하면 참가 보증금을 받아서 참여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 놀이를 되살려 알려주는 어른들

**조미영**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놀 친구도 놀 장소도 놀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환경을 바꿔줄 수 있기에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놀이를 전하며 세대 간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놀이를 전하며 세대 간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 맘껏 뛰놀고 자란 옛 추억이 삶의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10여 년 넘게 학교나 기관 등에서 놀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비석치기, 고무줄, 여러 가지 술래잡기 등 제주 올레에서 놀던 그 놀이를 어른들이 되살려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한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10년 넘게 초등학교 및 기타 기관에 출강하며 아이들에게 놀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놀 친구도 놀 장소도 놀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환경을 바꿔줄 수 있기에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실제 수업 시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참여자분들도 아이들이 되신 듯했어요. 놀이에서 개구지게 웃고 놀리기도 하는 모습이 마냥 초등학교생들 같았어요. 술래가 쫓아와서 도망가다 넘어져도 재밌고, 고무줄에 몸이 뱅뱅 감겨서 풀리지 않아 깔깔 웃음만 나는 얼굴들이 생생합니다.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놀이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첫 강의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놀고 즐거워하셨지만 강의 횟수가 늘수록 점점 더 격렬하게 놀아서 제가 놀이를 적당히 끊어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매번 집중하셨습니다.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알려주는 '놀이 현장을 재현'하며 진행했어요. 매시간마다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으며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상별 놀이 현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참여자분들이 놀이별 상황에 따른 질문을 많

이 주셨는데, 다양한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드리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강사가 아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안내로 별 어려움 없이 전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놀이를 알리고 있을 거예요.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번 공모에도 재밌는 프로그램 계획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고 싶어요. 23년 하반기 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Interview

# 날마다 꽃 한 송이 피우다, 페이퍼플라워 조인지



**"종이로 만들다 보니 생화에서 볼 수 없는 크기나 컬러로 완성할 수 있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른 분위기의 다른 꽃이 완성된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문화중개소 하반기 프로그램 '날마다 꽃 한 송이 피우다'라는 페이퍼 플라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페이퍼 플라워&마크라메 강사 조인지라고 합니다.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종이꽃 공예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주로 주름지나 색지, 철사, 글루 건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재료로 세상의 모든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를 만들다 보니 생화에서 볼 수 없는 크기나 컬러로 완성할 수 있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른 분위기의 다른 꽃이 완성된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Q.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연히 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 예술 쪽은 많지만, 공예 쪽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강사로 신청하게 되었고, 추후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이번 수강생분들 중에 최연소 수강생이 계시는데요 무려 생후 2개월 되셨습니다! 사실은 수강생분 중에 출산하신 지 2달밖에 안 되신 분이 계시는데, 보통 산후 조리하시느라 그 시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매주 출석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생후 2개월 아가랑 오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매주 아기를 볼 때마다 제가 더 힐링 되는 기분입니다.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달라진 점이라면 우선 페이퍼 플라워로 한 작품을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주름지와 친숙해지셔서 만드시는 속도도 빨라지시고, 이제 설명 없이도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바로 만들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워낙 들어가는 재료가 매 회차 다르고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 빠짐없이 준비하려고 매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수업 하루 전에 빠진 재료는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합니다. 제 작업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료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아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분들을 만나 뵈게 되니 좋은 기회였고, 문화중개소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 예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 진행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수강생분들께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계획은 추후에도 페이퍼 플라워라는 공예를 많은 사람이 아시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담당자님께서서 프로그램 하나하나 신경 쓰시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사들이 최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중개소에 바라는 점은 문화 예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로 내년에도 지금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 곁에, 수채 펜 드로잉

## 최은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어반 스케치의 삶은 매우 멋져요. 몰입하는 순간의 느낌은 말로 형용하기 힘든 희열과 감동의 느낌이에요."**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를 온전히 기록하는 어반 스케치의 삶을 살고 있는 은선초이입니다.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물과 내 곁을 지나치던 일상의 장소들, 내 안의 소중한 추억과 품어온 장소들을 수채 펜 드로잉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 Q.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반 스케치의 의미를 조금 더 친밀하게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수채 펜 드로잉이란 이름하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찰나로 끝나 버리는 순간들을 조금 더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몰입하는 순간의 느낌을 직접 느껴볼 수 있고 말로 형용하기 힘든 희열과 감동의 느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매일 그림 그리기 챌린지를 단독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한 분이 '매일 그림 그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들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과 기쁨이 제게도 전해져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첫 강의의 설렘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짧은 2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며 압박감을 느끼셨는데, 요즘에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집중하시는 점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밑그림 그리시는 속도가 빨라지셨어요!

###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편안해야 손이 가고 손이 가야 그림을 그릴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제 나름의 노하우예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참여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중개소는 프로그램, 의사소통, 결과 등을 '어떻게'에 중점을 두었고, 사안을 섬세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강사 입장에서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저 또한, 강사로서 12주 동안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했는데 평가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또는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2회 어반 스케치 개인 전시회를 목표로 부지런히 제주와 저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 <내 곁에 수채 펜 드로잉> 수업의 다음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과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 먹그림과 돌새김

황정숙



"기술은 자신 있게 가르쳐드릴 수 있지만 기본 방법을 가지고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달라 하죠. 작품에 정답은 없고 작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 Q. 자기소개 부탁 드릴게요.

저는 먹그림과 돌새김 수업을 진행했던 황정숙입니다.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군자를 그릴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 먼저 그런 수업은 아니라고 소개를 하죠. 캘리그래피 같이 디자인적 요소 등의 수업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인 재료도 쓰지만 일상의 재료들도 많이 써요. 우리가 늘 먹는 커피도 배경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료죠. 이렇게 전통회화에 기울어지지 않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직접 새겨보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돌에 이름을 새겨 도장을 만드는 것까지 수업에 포함하고 있죠.

### Q. 보통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으셔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노인 대학에서도 수업을 해봤는데 그때도 거의 육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모집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게 됐어요. 20~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직업군도 다양하세요.

### Q.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화를 전공한 전직 입시미술강사예요. 가르치는데 자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통문화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제주문화중개소의 수업 퀄리티가 다른 곳에 비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운이 좋게 프로그램이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 Q. 먹그림은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이 전공을 하려고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로 배우려고 오시는 거니까 최대한 쉬운 표현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붓도 자유롭게 쓰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붓과 친해지는 게 우선이니까요.

### Q. 강의를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돌새김을 하는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렁한 돌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성함이 민주인데 만주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두 번의 기회를 드려요. 두 번째에서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요. 첫 번째 수업 때의 에피소드는 어르신이 돋보기를 안 가져오신 거예요. 엄지만 한 사이즈의 도장에 이름을 새기려고 하니깐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욕심을 내시고 이름 석 자를 다 넣으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뜯어말리죠. 한 자 혹은 두 자까지 만 하자고요. 또 의외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칼질을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도장을 새겼을 때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 찍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는 수강생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라 말하죠.

### Q. 첫 강의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자신감을 얻으시는 거 같아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곳이 편안해서 본인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스스로 되게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수업은 수강생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막 끄집어 내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편안해 지더라고요. 이게 각자의 실력을 자유롭게 뽐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 같아요.

### Q.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를 알려 주세요.

수업 초반에는 제 실력을 좀 뽐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하지 말라고 꼭 얘기드려요. 제가 잘 해서가 아니라 오래 했기 때문에 못 따라오신다고 말씀드리죠. 그림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술 전달이 필요하긴 한데 그다음에 풀어나가는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자신 있게 가르쳐드릴 수 있지만 기본 방법을 가지고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 하죠. 작품에 정답은 없고 작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강사로서 참여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인구소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들을 연결시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강사들도 실력을 갖춘 퀄리티 있는 수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무료 수업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 같고요. 하지만 무료이다 보니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관에서 수강 희망자를 조금 더 까다롭게 선정해 주셔서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이끌려서 따라오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음 코스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루트를 통해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 번 여쭙보겠다 했죠. 이분들이 욕심이 나니까 상위 과정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 또한 그게 가능하다면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Q.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키워드인 디지털 이런 쪽이요. 저희 같이 좀 생소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재밌는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군자를 그리는 것이 아닌란 걸 강조하면서요. 처음부터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못 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홍보 방법이 좀 더 재밌고 다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Interview

디스코 뽀뽀

한정수

"수업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다보면 저도 에너지를 받거든요. 순수한 즐거움에서 오는 에너지요. 그러면 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진정할 수 있는 토닥임을 받는 거 같죠."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코 뽐뽐>, <맨발아 놀자> 강사 그리고 춤꾼 한정수라고 합니다.

### Q. <디스코 뽐뽐>과 <맨발아 놀자>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디스코 뽐뽐>은 유행했던 디스코 음악과 스텝을 신나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에요. 예를 들면 신디 로퍼의 음악, 써니, 존 트라볼타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와 스테잉 얼라이브. 이런 노래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시스템 이외에도 자기 개성을 뽐뽐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죠.

<맨발아 놀자>는 부모님과 아이가 2인 1조가 되어 순수하게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엄마가 바쁘시면 아빠들도 오시고요. 애들 하고 바닥에서 뒹굴뒹굴 스트레칭을 하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거나 수건돌리기를 하거나. 맨발로 부모님과 접촉을 하면서 신체 균형을 잡죠. 집에 동생이 있으면 같이 와서 놀 수도 있고요.

### Q.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학원을 오래하고 프리생활을 했었어요. 이 시기에 3년 정도 코로나가 오니까 지치더라고요. 무대는 물론이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취소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제가 제주문화중개소를 시범사업 때부터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춤 프로그램을 만든 거 같아요. 이게 제 자랑이지만 하루만에 예약이 다 끝날 만큼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수업을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참여를 하게 됐죠. 이게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률이 높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운 좋게 매회 됐죠.

### Q. 수업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버킷 리스트가 춤을 배우는 거였어요. 망설였지만 수업을 들어보니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 재밌다고 하셨고요. 이제는 올레길을 걸을 때도 헤드셋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수업에서 배운 스텝을 연습하신대요. 버킷 리스트를 이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너무 뿌듯하죠. 또 하나는 수업이 끝나니까 울면서 집에 안 가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더 하고 싶다고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업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서로 정이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 Q. 수업 마지막에 파티를 한다는 것이 흥미로워요.

예전에는 결과 발표회 같은 걸 했어요. 수업의 결과물인 그림이나 공예작품이 있으면 그것들을 전시하고, 춤이면 춤 공연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각자 하는 걸로 됐거든요. 코로나가 예민해지는 상황들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고 그래서요. 따라서 저희만의 발표회를 가지고자 파티를 준비하게 됐어요. 가족들도 초대하고 서로 준비한 의상을 입고 모두 함께 춤추는 그런 파티요. 맨발아 놀자 같은 경우도 2회 정도는 야외에서 놀자로 준비하고 있어요. 맨발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사장 아니면 황토가 있는 곳으로 가서 놀 계획을 짜고 있어요.

### Q. 첫 번째 수업과 지금까지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수강생분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게 밀려 있는 대기 속에서 뽐뽐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첫 수업 때 사람들이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서두르시는 수강생분들께 항상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춤이든 출 수 있게 만들어드린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시던 분들도 마지막엔 다들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참여 기회를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최소 4번은 수업을 듣고 그만둘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 Q.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를 알려 주세요.

제 노하우는 즐기는 거예요. 제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해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즐겁다고 웃어 주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참여자분들이 즐거워지면 강사도 같이 즐거워지고요. 그런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제 강점이죠.

그리고 내 기준보다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기준을 맞춰야 해요. 아이랑 놀려면 아이의 눈높이에, 어른과 놀려면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어쩔 때는 내가 아이인지 아이가 어른인지 몰라요. 아이가 더 어른스러울 때도 있단니까요.

###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강사로서 참여해 보니 어떠신가요?

시범사업 때부터 저는 제주 곳곳에 좋은 기회와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지지 않고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참여자들은 물론 강사님들도 일회성이 아니고 차곡차곡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실패도 해보고 안타까워해보고 수정도 해보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보면 더 나은 제주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주문화중개소가 좋은 예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에너지를 뽐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



요. 가장 중요한 건 참여자들이 '무료니까 안 가도 되겠다' 생각하면 선생님들도 '이만큼만 준비할 거야'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즐거울 수는 없으니까 노력하고 시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겠죠.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제주문화중개소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하고 있고, 공연도 하고 있어요. 저를 아직도 촌꾼 한정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라는 큰 무대에서도 오프닝 공연도 하고, 전국구 수업도 하고요. 책임감이 묵직해지긴 해요. 제 스스로 프로답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매일 훈련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문화중개소에 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낸 아이디어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되면 제주문화중개소가 손해일 거지만요.

**Q. 체력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콘드로이친을 열심히 먹죠. 저는 직업병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겠지만, 관절 아픈 건 그냥 제 동반자죠. 안무를 짜는 것도 쉽게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수행하듯이 하거나 어쩔 때는 그냥 봐요. 잡고 있다고 안무가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다 보면 더 자극이 올 때가 있어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다 보면 저도 에너지를 받거든요. 순수한 즐거움에서 오는 에너지요. 그러면 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진정할 수 있는 토닥임을 받는 거 같죠.

**Q.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수업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요. 저는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출석수가 모자라다 하면 누가 왜 못 오는지 스케줄을 관리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고, 일일이 전화해서 강사님들의 요구나 컨디션을 확인하고요. 제주시에서부터 서귀포까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다 관리를 하죠. 이게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진들은 물론 강사, 열심히 나오는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노력하는 시간들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중개소팀 올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Interview

# 성인을 위한 소설 토론 최신 소설반, 고전 소설반

**오승주**

**"이곳에서는 다른 세대의 생각을 들으면서 고민을 나누는 것에 대한 쾌감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의견에 대해 환영하시는, 소설의 열린 결말같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름을 오히려 원하시는 거 같아요."**



### Q.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박사 과정 수료 후 4·3을 연구하는 소설가 지망생 오승주입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그림책과 고전을 가지고 토론 중심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설을 핑계 삼아 수다를 떠는 수업이에요. 책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듯이 인기 소설과 고전 소설을 같이 읽을 수 있게끔 선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신작 중에서도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은 인기 작품과 카프카의 '변신'과 같은 고전 작품을 읽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질문이나 쟁점을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업이에요.

### Q. 소설의 선택 기준이 있나요?

일단 고전은 꼭 넣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너무 고전만 있으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최신 소설도 넣는데, 베스트셀러라든지 좀 인기에 영합하는 작품들은 빠자는 입장으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원하는 소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의 재심 투표를 받고 리스트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책을 고르죠.

### Q.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시간을 아무 얘기만 하면 허무하고요. 뭔가 중심이 있는 이야기들에 목말라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까르마조프의 형제'라는 작품에서 살인을 한 인물인 스메르자코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말을 섞는 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다." 그 욕구가 모두에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혹은 삼천포로 빠지는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 Q. 토론 중에 논쟁을 하기도 하나요?

제 수업은 자신을 내려놓자는 각오를 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거 같아요. 토론 수업은 정말 요람에서 무덤. 무덤만 제외하고 다 오시거든요. 20대 초반부터 7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오세요. 일상에서는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세대의 생각을 들으면서 고민을 나누는 쾌감으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의견에 대해 환영하시는, 소설의 열린 결말같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름을 오히려 원하시는 거 같아요.

### Q.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수업이 말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빠질지 저도 예측을 못해요. 한 번은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수강생 한 분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 주셨거든요. 진짜 믿었던 언니한테 배신을 세계 당해서 제주도 피신해서 왔다고 다 내려놓고 그냥 와서 3년 동안 좀비같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여기서 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정된 대화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걸 토론타다 보니까 옆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격렬하고 역동적인 파도 같은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분이 치유된다고 느꼈거든요. 치료가 치유해 주는 게 아니고 대화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올려놓고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여기가 심리치료소인가 생각도 좀 들었던 거 같아요.

### Q. 첫 수업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수강생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단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작품에서 토론이나 쟁점을 찾아내며 말들이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주도한다는 느낌이 들고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토론의 '토'자가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격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토론의 노련한 밀당꾼이 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동네나 아파트 단지에서 수업은 피하거든요?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려면 우선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해요. 멤버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여야 해요. 말들이 건너 건너가서 나한테 다시 오지 않는다는 안정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더 뜨거워지고 격렬해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 Q.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이 돈독해질 것 같아요.

참여자분들끼리 연락도 주고받고 해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에게는 본인 것을 만들어 달라 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에서 오시는 분들은 1시간 20분 정도 카풀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주도 어디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오시겠구나 생각했죠.

### Q.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를 알려 주세요.

저는 이야기의 쟁점을 정할 때도 다소 무거운 주제 속에 말랑말랑한 쉬운 주제를 하나 집어넣어요. 마치 수능 시험의 1번 문제 같아요. 1번 문제는 되게 쉽고 2번부터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영업 기술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 미끼를 던지면 물 수 있게요. 질문의 배치를 다양하게 해서

각자 취향에 맞는 질문을 선택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에 3회 이상 빠지면 수강생에게 패널티가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패널티가 아니라 고통을 줘야 한다고요. 소설이라는 것이 고통을 위로해 주잖아요. 저의 과거 이야기가 일종의 고통, 장작이라고 한다면 제가 장작을 하나 던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장작을 던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작들이 쌓여서 불타오르는 캠프파이어 같은 모습이 돼요. 고통을 하나 던져서 수업의 흐름을 풀어가는 거죠. 자기 고통을 던지는 것이 수업을 끊지 못하게 하는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흥미롭게 이어지면 이분들은 이야기의 끈에 묶여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Q. 감사로서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니 어떠신가요?

일단 준비된 수강생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랄까 도서관 수업이랑 완전히 다른 게 몇 번의 검증 장치를 두잖아요. 서류 전형에서 통과해야 하고 수강생의 선택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검증되어서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참여하는 수강생분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셨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도 자극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성인은 그런데 솔직히 어린이들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 하고 청소년들은 부모가 떠밀어서 온 거잖아요. 오히려 애네들은 제가 못 믿겠어요. 하지만 성인들은 믿어요. 성인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온 거고 사연도 많아서 진짜 내면의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통을 뽑아내는 그 구조가 갖춰져 있어서 최고의 수강생들이죠.

####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소설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몇 개의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어요. 장선화 선생님이 독일 유학파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문화중개소에서 음악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고대 철학, 독일의 철학과 인문학에 엄청난 내공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독일 소설의 대가인 토마스만의 고대 철학을, 저는 나쓰메 소세키의 근대철학을 콜라보 해서 토론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이게 던져놔야 추진이 되니까 미리 귀땀을 해야죠.

####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소설을 읽고 토론도 하지만 소설을 직접 조금씩 써보게 하고 마지막 피드백을 통해 자신만의 소설을 발전시키게 하는 수업을 개설한다거나요. 이게 시즌으로 보았을 때 시즌 2나 시즌 3으로 가면 이분들이 어느 날 문화중개소 강사로 변신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 같아요. 제가 너무 문화중개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중개소의 수강생에서 강사로 변신시켜 모두 하나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 Interview

# 신나는 샌드아트 배워보기

## 고혁진

"제주의 신화, 전설, 문화와 제주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샌드아트로 다양한 세대와 어울려 소통하고, 빛과 모래로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있는 제주 1세대 샌드 아티스트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 출신 1세대 샌드 아티스트입니다. 제주의 신화나 전설, 문화와 제주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샌드아트를 꾸준히 하면서 공연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마을 삼촌들까지 다양한 세대와 어울려 소통하고, 빛과 모래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빛과 모래의 예술인 샌드아트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흥미에 따라 동식물, 사물, 풍경 등을 샌드아트로 표현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중개소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는 12주 완성의 샌드아트 기초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준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기관과 협업으로 샌드아트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지역이 문화적 혜택을 받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문화중개소를 통해 제주의 많은 지역에서 같이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교육과정 중간 일정쯤에 그동안 배운 것을 응용해서 짧은 라이브 공연을 모든 수강생이 한 번씩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기대 이상으로 잘 표현해 주셔서 그 모습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며, 잘 안되는 부분은 같이 방법을 찾아가면서 노력합니다.

**Q. 제주문화중개소 강사로서 참여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제주문화중개소 강사가 되면서 제주의 구석구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 직원분들이 편하게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처럼 꾸준히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만나서 즐겁게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표현을 담은 개성 있는 작품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바라는 점은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이 더 확장되고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멋지 있는 워킹으로, 부라보 마이 라이프!

## 김복미



**" 프로그램은 인생 중반을 지내온 중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회활동, 경제활동, 가정 그리고 육아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 워킹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 PNP에이전시 대표이자, 현재 사단법인 한국다원예술문화협회 협회장 김복미입니다.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인생을 중반까지 살아온 중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회활동, 경제 활동, 가정 그리고 육아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 워킹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 Q. 모델 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나요?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면서부터 스스로를 돌아보죠. 우선 몸이 틀어지면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 전에 자세를 교정함으로써 일차적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면 속 자신의 모습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족 관계에 만 신경을 써서 젊었을 때의 끼와 멋을 잊어버렸다면 그걸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 Q. 자세란 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12차시 수업이니까 3개월 과정이죠? 짧긴 짧아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변화를 느낀 수강생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주변에서 자세와 걸음걸이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많이 얘기 해 주셨대요. 또 어떤 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의 걸음걸이를 확인하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종종 보면서 일상의 활력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 Q. 강의를 복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이 수업을 많이 듣고 있나요?

동네 주민, 구좌 심지어 서귀포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지역 주민도 있지만 타 지역 분들도 많죠. 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은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공유되다 보니까 검색에 능하신 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한림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동네다 보니까 회차가 지날 수록 수강생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오셨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냥 수업에 다 합류할 수 있게 했죠. 제 프로그램은 특성상 1을 배우면 그 다음엔 1, 2를 배우고 또 다음날에는 1, 2, 3을 배우는 반복 구조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중간에 오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큰 장점이지요.

**Q.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헬스를 하셨던 수강생이 있었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깨랑 목에 무리가 갔대요. 팔을 못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그냥 재미로, 걸음걸이를 고쳐보아야지 하고 등록하셨대요.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하거든요? 제 스트레칭을 따라 하다 보니까 팔이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좌골 신경통이 없어졌다고 하시고요. 나이가 들면 알게 모르게 틀어짐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하죠. 저도 젊었을 때 디스크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통증은 수술이 아닌 운동으로 고쳐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잘 따라 하시고 결과를 본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죠.

**Q.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자세와 자신감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표정도 달라지세요. 저희는 첫 수업 때 걸음걸이 동영상 찍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수업 때도 미니 패션쇼를 열면서 또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들 흡족해하시거든요. 솔직히 다들 이렇다 할 몸무게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체지방률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라인과 피지컬이 달라져서 옷발이 잘 받는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패션쇼에서 포즈 잡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데 사진에서 포즈를 잘 취하고 잘 웃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Q. 선생님만의 강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수업 시간에 되새김질을 되게 많이 해요. 한 수강생분은 귀에 피딱지가 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의자에 앉을 때도 '코어 잡으세요', '배꼽!'하는 제 목소리가 들려서 바로 자세를 수정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습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서, 몸이 스스로 받아들여지게 해서 습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업 때 짧고 굵은 멘트를 사용해요.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건 다 흘려들어 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키포인트 단어 위주로. 사람들은 제가 "출발~!"이라고 할 때가 너무 좋다고 하세요. 반복을 하거나 스텝 워킹을 할 때 항상 처음에 그 단어를 쓰거든요.

**Q. 제주문화중개소 프로그램 강사로서 참여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좋죠. 일단 제 경력을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다른 곳에서는 규정에 따른 제약이 많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문화중개소에서는 우리 수업에 대한 퀄리티를 인정해 주시고 파급해 주시는 거라서 강사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건의를 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도 하고요.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프로그램을 세 군데에서 운영했잖아요. 처음에 중문, 다음에 한림, 지금 북촌까지요. 협회에서 매년 정기 공연을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지역별 연합을 만들어 무대를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 공연은 계속될 거니까 연결의 끈을 놓지 않게끔 이요. 그리고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배운 거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약간의 경쟁심이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서로 하나라는 동료애를 가질 수 있잖아요. 10분의 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해요. 또 나 혼자 잘났다고 그 쇼는 완성되지 않아요. 서로를 배려해 주는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Q.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협회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중개소 자체에서도 배운 것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강생분들이 그것을 목표로 해서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배울 것 같아요. 제가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 드렸나요?



# 오페라가 있는 우아한 밤

## 장선화



**"어떤 강의든 절대로 재미없어서는 안된다' 이게 제 강의 좌우명이거든요?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흡입력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제가 확고해야죠."**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문화중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음악학자 장선화입니다.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페라가 있는 우아한 밤>은 오페라를 감상하는 수업이죠. 그리고 음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르쳐드리고 음악사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음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실 오페라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그 곡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악 감상 반, 설명 반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했죠.

### Q.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재미있어 하세요.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페라 영상에 직접 자막을 단 적이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전곡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너무 재미있어하시고 감동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다음 수업 때는 자막이 없으니깐 그만한 흥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조율 중에 있어요.

### Q. 곡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어요. 제 목표는 오페라를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시대별 곡을 듣고자 하죠. 그래서 시대사적인 부분을 잘 드러내 주는 작품으로 아무래도 찾게 되죠. 가령 푸치니나 베르디같이 유명한 작품이 너무 많다면 고민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잡았어요.

### Q.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전에 기악 음악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어서 중간에 오페라를 소개해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물론 음악 하시는 분들도 성악과 기악에 있어서 선호도가 확 갈리긴 해요. 하지만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반반으로 좋아하실 줄 알고 그렇게 비중을 잡으려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페라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도 알아야 하고 작품들은 무수히 많고 그래서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이후에 짧게 시대적 차원에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니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수업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주력 분야가 아니어서 고민했는데 몇 번 진행해 보니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죠.

### Q.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희가 마술피리를 전곡으로 감상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다들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더라고요. 끝까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중간에 흐름을 끊기가 죄송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또 한 번은 베르디의 리골레토 영상 마지막에 굉장히 유명한 4중창이 있거든요? 이게 7~8분 가량의 길이인데 클래식인 경우 너무 오래 듣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콘서트도 아니고 녹화된 영상이니까 끊어 주시길 바라는 눈빛이면 중단할 계획이었죠. 근데 자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즐겁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안에서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학습하셨구나 체감할 수 있었죠. 감동이었어요.

### Q. 선생님만의 강의 노하우를 알려 주세요.

저는 노하우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준비. 저는 진짜 미치게 준비를 해요. '어떤 강의든 절대로 재미없어서는 안된다' 이게 제 강의 좌우명이거든요?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흡입력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제가 확고해야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2안, 3안까지 만들어서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돌려야지 수업에 들어가죠.

그리고 저는 시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졸어들면 남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씩 차례차례 눈을 맞춰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시고 지루해 하시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시선을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맞춰가야죠.

### Q. 음악을 듣고 나서 수강생분들의 감상평을 공유하나요?

아니요.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클래식 음악을 듣고 감상평을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거진 우려나서 한 번 말씀을 시작하신 분도 파고들어서 얘기를 듣고자 하면 입을 닫으시고요. 클래식 음악이 주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매개로 얘기를 나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신 간혹가다 짧은 감동 표현은 해 주시죠.

제 수업을 3년 동안 들으신 수강생분이 있으세요. 이분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요소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고 얘기해야 될지가 클래식 음

악은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대중음악은 가사도 있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반면 클래식은 멜로디를 외우기도 쉽지 않고 길이가 길어서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을 지도 찾기 어렵고요. 그래서 강사가 준비를 더 해야겠죠.

### Q. 선생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선 오페라를 조금 더 파고 싶어요. 사람들이 감상 포인트를 잡고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심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클래식에 관한 책자를 만들고 수강생분들께 나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수업 때 배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좋아하셨고요. 다음에는 수강생분들이 특정 곡에 대한 감상을 적을 수 있는 클래식 다이어리를 운영해 보고 싶어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말로는 힘드니까 조금씩 글로 적어볼 수 있게요.

### Q. 제주문화중개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제주문화중개소에 들어와서 굉장히 감동받은 케이스예요.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악회는 있고 음악에 대한 강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토양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듯이 기본적인 교양의 소양을 잡기 위해서는 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문화중개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대학 강의가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나 도의 공연 사업과 연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음악이라는 소재를 통해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문화중개소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원래 큰 딸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데 영어 놀이터 프로그램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을 따로 단독 창에 올려 주시는 등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질 높은 교육을 지역에서 느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어 소란스러움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자아성찰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듣는다는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내용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고 매 강의마다 성의 있게 준비해 오시는 강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컨셉이 확실한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되고 이런 좋은 수업을 긴 시간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이 아주 높았습니다. 단순 교육이나 참여가 아닌 애들이 정말 재미있어하고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저 또한 지역을 알아가고, 워킹맘이라 교육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덕분에 주말에 육아 부담을 덜었습니다.

제주에서 문화교육을 받기 어려운데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삶이 여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제주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문화활동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사님이 정말 항상 시간 초과하시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 덕분에 매 수업 시간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게 실버들을 위한 프로그램 비중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도 진입이 됐고 수준 높은 다양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엔 토론이라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다보니 내 생각의 편협함을 느끼면서 크고 넓게 생각의 폭이 커져서 좋았습니다.

살면서 만나볼 수 없는 직종과 나이대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 함께 희곡을 낭독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점점 자신이 없어질 때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교정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쁜 젊음보다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나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 제주문화중개소

##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03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2018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회의  
**71회**



공간  
**15개**



참여 강사  
**23명**



프로그램 운영  
**23개**



문화활동가 운영  
**14명**



참여자  
**234명**



성과발표회  
**16개/170명**



특별 프로그램  
운영  
**6개/75명**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3회**



운영 사업 홍보 관련 실적  
영상 및 콘텐츠 제작  
**10회**

# 2019

# 2020



프로그램 운영  
42개



동호회 운영  
5개



프로그램 운영  
51개



동호회 운영  
7개



참여자  
636명



참여 강사  
65명



참여자  
606명



참여 강사  
59명



문화활동가 운영  
35명



성과발표회  
14회/248명



성과발표회  
7개/136명



공간  
19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강가 평가 실시  
2회



홍보물 제작  
22건



홍보물 제작  
15회



문화활동가 운영  
40명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회의  
39회



강사 간담회 개최 및 유사  
선진사업 벤치마킹  
3회



아카이빙  
작업 실시  
5회



자문 및 업무회의  
13회

# 2021

# 2022



프로그램 운영  
34개



참여 강사  
39명



참여자  
361명



공간  
8개



문화 활동가 운영  
27명



운영 사업 홍보물 제작  
21회



자문 및 업무회의  
14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회



프로그램 운영  
33개



동호회 운영  
7개



참여자  
456명



참여 강사  
37명



결과발표회  
26개/455명



공간  
25개



운영 사업  
홍보물 제작  
32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3회



프로그램  
설문조사  
3회



자문 및 업무회의  
10회

# 2023



프로그램 운영

61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3회



참여자

866명



참여 강사

47명



강사 워크숍

20회/47명



공간

57개



프로그램  
수요조사

2회/147명



모니터링 실시

52회



운영 사업  
홍보물 제작

31회



업무회의

34회

제주문화중개소

Program  
history

04

단기 프로그램

- 릴레이 드로잉 ... 최소연
- 우리들 옛 바느질 ... 이지선
- 수중촬영 프로젝트 ... 허천범
- 예지영의 첼로살롱 ... 예지영
- 즉흥 춤 메소드 ... 기은주
- 오래된 미래, 자서전 쓰기 ... 고세훈
- 멋과 여유를 쓰다(캘리그래피) ... 김종건
- 내 속에 춤추는 장단(장구) ... 고석철
- 손바닥 발바닥 글쓰기 교실 ... 김신숙
- 마음글꽃 피우다(캘리그래피) ... 김효은
- 아코디안과 추억 쌓기 ... 이상임
- 꿈지락 옛바느질 ... 이지선
- 살사 피버 나이트 ... 이희백
- 세상 표현(연극) ... 오상운
- 나의 노래를 찾다(목소리와 이미지 메이킹) ... 정현민
- 시 창작 교실 ... 현택훈
- 바다쓰레기로 동화적 상상하기 ... 김지환
- 미술아 내 이야기 들어줄래? ... 임진미
- 스포츠 댄스(살사 피버 나이트) ... 이희백

- 바다 쓰레기, 작품이 되다1&2 ... 김지환
- 작가를 꿈꾸다(소설의 미학과 스토리텔링) ... 김재영
- 하루키 소설로 팝 음악 읽기 ... 조혁신

특강

- 별별 시:작
- 반짝 시:작

발표회

- 시비월파릴, 모든 시:작

단기 프로그램 1

- 마음글꽃 피우다 ... 김효은
- 쓰고 새기며 예술에 노닐다 ... 김종건
- 쓱쓱쓱 5분 크로키 ... 김품창
- 오지다 청소년 영화 제작 랩 ... 정명숙
- 와! 그림이 움직이네 ... 권세혁
- 우리들 옛바느질2 ... 이지선
- 찰칵, 물 속 세상을 낚는다 ... 허천범
- 한 땀 자수 이야기 ... 이지선
- 내 속에 춤추는 장단2 ... 고석철
- 살사 피버 나이트 초급&초중급 ... 이희백 김수진
- 생활 한국 춤 메소드 ... 기은주
- 예지영의 첼로살롱 ... 예지영
- 춤춰라 꿈춰라 K-POP ... 홍승기
-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 김선동
- 꼬마들의 예술기지 ... 고지연
- 바다 쓰레기의 동화적 상상 ... 김지환
- 인문학 그림 그리기 ... 문신기
- #스톱모션 #마을뉴스 #만들어보카 ... 강은숙

동호회

- 마니클럽
- 요리조리
- 우쿨우쿨 꿈틀꿈틀
- 중문마을 민요합창단
- 캘리다움

# 2019

# 2020

## 단기 프로그램 2

- 나\_我\_무\_舞 ... 곽고은
- 덩&따드락따 우리장단 ... 고석철
- 듬칫듬칫 아카펠라 ... 김선동
-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2 ... 김선동
- 예지영의 첼로살롱3 ... 예지영
- 살사 피버 나이트 초급&초중급 ... 이희백 김수진
- 춤춰라 꿈춰라 K-POP2 ... 홍승기
- 생각을 담은 서툰 화가 ... 권세혁
- 쓰고 새기며 예술에 노닐다2 ... 김종건
- 쓱쓱 5분 크로키2 ... 김품창
- 미술관 연애 ... 문신기
- 우리들 옛바느질3 ... 이지선
- 수중 1인 크리에이터 ... 허천범
- #스톱모션 #영상기법 #나무 ... 강은숙
- 꼬마들의 예술기지2 ... 고지연
- 신나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 김지환
-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 오승주
- 예술놀이 명상 ... 이미연
- 클래식 음악에의 노크 ... 장선화

## 특강

- 기록학교
- 특강만끽
- 발광, 빛나는 오픈클래스

## 발표회

- 도발데이
- 발광

## 단기 프로그램 1

- 함께니까, 아카펠라! 초급 ... 김선동
- 예지영의 첼로 살롱 with piano ... 예지영 강한나
- 2020 살사 피버 나이트 초급&초중급 ... 이희백 김수진
- Urban dance, 기초에서 안무까지 ... 한정수
- 수목 풍경에 노닐다 ... 권세혁
- 쓱쓱 5분 크로키 ... 김품창
- 우리들 옛 바느질 ... 이지선
- 휴과의 시간 ... 어정선
- 청소년아, 정치소설 시작하자! ... 오승주
- 미디어와 노는 아이들 ... 강은숙
- 색채와 명상 ... 이재문
- 쇼콜라티에와 춤을 ... 신창식

## 단기 프로그램 2

- 금요일엔 K-POP 하세요! ... 홍승기
- 함께니까, 아카펠라! 초급 ... 김선동
- Urban dance, 기초에서 안무까지2 ... 한정수
- 문철씨의 음악토크, 아는 만큼 들린다 ... 김문철
- 예지영의 첼로 살롱5 ver. Beethoven ... 예지영 강한나
- 장단을 품은 삶 ... 고석철 부혜미
- 2020 살사 피버 나이트 초급&초중급 ... 이희백 김수진
- 우리들 옛 바느질5 ... 이지선
- 쓱쓱 5분 크로키 ... 김품창
- 전통민화와 궁중채색화를 시:작하다 ... 정수연
- 휴과의 시간 ... 어정선
- 영화와 함께 '어린이 작가 클럽' ... 노수미
- 그림책과 사진으로 배우는 4.3 기억법 ... 오승주
- 가족과 함께, 뭐든 만들기 ... 부선희
- 색채와 명상 ... 이재문
- 우리, 건강한 빵 만들어 먹을까? ... 오혜림
- 쇼콜라티에는 달달하다 ... 신창식

# 2020

## 장기 프로그램

- 함께니까, 아카펠라! 중급 ... 김선동
- 웃당보민, 노래하민 ... 양성비
- 2020 바다의 기록 ... 허천범
- 오! 마이, 웹툰 ... 박항아
- 클래식 음악에의 노크 ... 장선화
- 환경놀이, 업사이클링 ... 김지환

## 동호회

- 파도소리
- 우쿨우쿨 꿈틀꿈틀
- 서귀포와 수다
- 중문마을 제주민요 어울림 합창단
- 다붓다붓 수채 펜 드로잉
- 캘리다움
- 막동산 문학회

## 특강

- 도시락 Do-Si-樂 ... 김선동 노수미
- 피아노트리모, 그 속살을 보다 ... 예지영 김문철 강한나
- 몸의 연주 ... 주나모&김바리(바리나모) 외 6인
- 사진에 내재된 것들 ... 김종환 김혜미
- 4.3 웹툰 그리기 ... 오승주 박항아

## 축제

'시:작은 2020 The Little Poem'

# 2021

## 단기 프로그램 1

- 싱어송라이터 프로젝트 '도시락' ... 김선동 노수미
- Go Go Dance! 포인트 안무 배우기 ... 한정수
- 살사 피버 나이트 초급 ... 이희백
- 춤, 나를 말하다 ... 홍승기
- 아리랑 장단여행 ... 고석철 부혜미
- 전통민화를 시:작하다 ... 정수연
- 사진에 내재된 것들(김명갑 오마주) ... 김혜미
- 수목풍경에 노닐다 ... 권세혁
- 씩씩씩 5분 크로키 ... 김품창
- 사람과 수공예 ... 양설
- 이야기해 다시 반짝거리(치유 글쓰기) ... 김신숙
- 한 송이 콘텐츠를 피우기 위해 ... 조희제
- 나는 미디어 팩트체커 ... 강은숙
- MY STORY 인스타툰 작가 ... 박항아

## 단기 프로그램 2

- 장단장구의 흥과 멋 ... 고석철 부혜미
- 땀! 땀! 소녀독무(少女撰舞) ... 곽고은
- 싱어송라이터 프로젝트 '도시락' ... 김선동 노수미
- Go Go Dance! Again ... 한정수
- 수목풍경에 노닐다 ... 권세혁

- 엄마들 옛 바느질 ... 이지선
- 아꼬운 전통민화 ... 정수연
- 비비작작 그림 자서전 ... 최유림
- 글쓸 樂(제주책 자파리) ... 김신숙
- 미디어로 표현하는 나 ... 강은숙
- MY STORY 인스타툰 작가 ... 박항아
- 엄마가 배워요! 공감 미술 놀이 ... 정혜정

## 장기 프로그램

- 클래식 다이어리 ... 장선화
- 함께니까 더 좋다! 아카펠라 ... 김선동
- 문철씨의 음악토크 ver.2 ... 김문철

## 동호회

- 중문마을 민요합창단
- 파도소리
- 두모악 사진반
- 캘리다움
- 섬청소 패거리

## 발표회

케세라세라



# 2022

## 단기 프로그램 1

내 안의 송모먼트 : 순간에 답하다 ... 허안

들썩들썩, 탈놀이 탈춤 ... 박준하

서귀포 빛나는 시계(時契) ... 김신숙

논어 한 글자, 생각 아홉 글자 ... 오승주

우리 마을 여행책 만들기 ... 박정은

마을 이야기, 만화로 그린다 ... 박향아

엄마가 배워요! 공감 미술 놀이2 ... 정혜정

그림이 가진 힘(발달장애 예술치유) ... 광고을

스토리텔링 페이퍼 아트 ... 서정화

다시, 보(襖)다 ... 지문선

## 단기 프로그램 2

그녀들의 옛지와 워킹을 위하여 : 시니어 모델 클래스 ... 김복미

내 안의 송모먼트 : 순간에 답하다2 ... 허안

들썩들썩 탈놀이, 봉산탈춤 ... 박준하

장구로 장(長)단(短)! ... 고석철 부혜미

아꼬운 전통민화 ... 정수연

야나두! FUN 캐리커처! ... 우연이

우리들의 제주스 : 영상 콘텐츠 제작 ... 김도훈

마음을 책으로 만드는 시간 ... 박정은

## 단기 프로그램 3

그녀들의 옛지와 워킹을 위하여 : 시니어 모델 클래스2 ... 김복미

내 안의 송모먼트 : 순간에 답하다3 ... 허안

들썩들썩 탈놀이, 봉산탈춤3 ... 박준하

장구가 좋다! ... 고석철 부혜미

아꼬운 전통민화5 ... 정수연

우리들의 제주스 두 번째 이야기 : 영상콘텐츠 제작 ... 김도훈

이웃마을로 여행을 떠나요 : 여행 에세이 쓰기 ... 박정은

예지영의 첼로살롱6 '오버 더 레인보우' ... 예지영 강한나

## 장기 프로그램

싱어송라이터 '도시락Do-Si-樂' ... 김선동 노수미

낭만 클래식 ... 장선화

K-Dance, 힙한 춤바람 ... 한정수

손으로 전하는 우리 이음매 ... 이지선

수묵 일러스트, 서귀포와 만나다 ... 권세혁

비비작작 그림 자서전 ... 최유림

그림책을 만드는 친구들 ... 김품창

## 동호회

중문마을 민요합창단

캘리다움

섬청소패거리

아카공감

살사왓

## 특강

세상의 모든 재즈1&2&3 ... 조윤성

아침정원에 빛나는 것들 in VEKE ... 김봉찬

내 사랑의 반복되는 패턴? ... 허경

현대예술 너무 어려워요! ... 허경

## 발표회

라라라피네

# 문화예술로 연결된 사람들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 고태호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주소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064.729.0614 / 0618
홈페이지	<a href="http://start.jejuessd.kr">start.jejuessd.kr</a>
디자인	주식회사 핸들



